



기독일보



2024년 1월 5일 금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455호

“영원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 살자”

예장 합동, 4일
2024년 신년 하례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사진)가 2024년 신년 하례회를 4일 서울 강남구 종회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와 2부 하례 순서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에선 서기 김한숙 목사의 인도, 부총회장 김영구 장로의 기도, 부서기 임병재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하나님의 책을 꾀하는 사람들’(느헤미야 8:4-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 총회장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고 했다.
또 “학사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들과 원팀을 이뤄냈다. 우리 총회 임원들도 갈등을 겪고 있으나 그럼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총회 임원들이 원팀을 이뤄 일을 하자”고 했다.

그는 “본문에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에스라 등 지도자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의 체질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했다. 우리 총회도 자연 학연 등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 이권에서 벗어나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 총회장은 “우리 존재 안에도 어둠이 있지만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내면이 밝아질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잘못에도 불쌍히 여기실 줄 믿는다”며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주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주의 말씀과 뜻에 절저히 순

종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가 ‘총회 산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회계 김화중 장로가 ‘GMS 선교사 사역과 재정을 위하여’, 부회계 이민호 장로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과 북한교회 회복을 위하여’기도했다.

증경총회장 장차남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장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경의 절대권위를 근간으로 하는 개혁신학을 굳건히 지지길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에 절저히 순종하는 개혁신학이 합동총회의 중심임을 알기를 바란다”며 “팬데믹 동안 타격을 입은 한국교회의 회복이 절실히 부탁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총회로 세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일심으로 올해 전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총회총무 박용구 목사의 광고 및 인사에 이어 다같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균원 하나님을 부른 뒤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의 축도로 마무



총회 임원들이 신년 인사를 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리됐다.

이후 2부 하례 순서가 이어졌다. 오정호 총회장이 총회 사랑 배지를 수여하는 순서에 이어 총회 임원들과 각 상비부장·상설/특별위원장·속회위원장들이 신년 인사를 했다. 이날 인사한 총회 산하 기관장은 총신대 이사장 화종부 목사, 총신대 총

장 박성규 목사, 총회세계선교회 부이사장 정영교 목사,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 총회교회자립 개발원 이사장 이현국 목사, 총회교육개발원 회계 홍승영 목사,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화 목사, 교회여일어나라위원회 위원장 고석찬 목사이다.

노형구 기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기도·말씀·은혜로 살자”

기침, 4일 2024년 신년감사예배 드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총회장 이종성 목사(사진))가 4일 서울 여의도 종회회관 13층 대예배실에서 2024년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감사예배에선 1부총회장 흥석훈 목사(신탄진교회)의 사회로 국내선교회 이사장 김창락 목사(수원동부교회)가 기도했고, 교회진흥원이사장 박대선 목사, 원장 김용성 목사(직원들이 특송을 한 뒤, 71대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유영식 목사(동대구교회))가 ‘때가 차매’(갈 4:4~6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유 목사는 “갈라디아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으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며 율법으로 변질되고 왜곡되면서 복음을

잃어버렸다.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침례교회도 이런 모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경험하기 원하며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 운 한 해를 은혜로 보내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후 이대식 목사(원주가현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하례식을 진행했다. 총회 전도부장 최성일 목사(주신교회)의 사회로 이종성 총회장이 신년사를 전했다. 이 총회장은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단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2024년 신년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있는 시대를 맞이하며 더욱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13차 총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침례교회가 부흥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모든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며 혜쳐나갈 것”이라며 “충심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 전국교회와 지방회, 기관을 섬기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총회는 이날 2024년 신년감사예배를 시작으로 2024 목회자(선교사) 자녀 영성 순례회, 전국지방회 간담회, 100만 뱃티스트 전도운동,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양재순 목사(안양성도교회)와 65대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남호 목사(테크노사랑의교회)가 축사했다.

이어 군경선교회 △서용오 회장이 ‘세계평화, 국가와 위정자, 평화통일을 위해’ △해외선교회 주민호 회장이 ‘지방회와 교회,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해’ △전국여성선교연합회 백순실 총무가 ‘113차 총회 의장단과 임원, 총회 사업을 위해’ 각각 기도하고 총회 총무 김일엽 목사가 광고한 뒤, 단체 기념촬영하며 신년감사예배를 마쳤다.

총회는 이날 2024년 신년감사예배를 시작으로 2024 목회자(선교사) 자녀 영성 순례회, 전국지방회 간담회, 100만 뱃티스트 전도운동,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김의식 총회장 “복음 전하고 치유·회복에 더욱 힘써야”

예장 통합 2024년 신년사 발표



예장 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사진)가 2024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총회장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국내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각 분야의 큰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블루 키예시리아 지진, 모로코 지진,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헤아림”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이 우리를 이러한 끝없는 불행과 분쟁으로 몰고 갔나? 그것은 개인과 집단이 기주의에 의해 지역간, 계층간, 이념간, 세대간, 성별간 대립과 분열이 극심해지기 때문이었다”며 “거기에 다 면출 줄 모르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황폐화 하였으며 전쟁을 일으켜 온갖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이 뒤따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총회장은 “문제의 해답은 분명하다. 새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대립은 모두 다 버려야 한다. 그리

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고 용서와 화해와 은혜와 행복을 나누는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러한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서로 불화하고 분쟁할 힘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믿는 자의 모범을 보이며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총회장은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밝히고,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4월 10일에 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정치인, 국민을 위한 선임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인, 지역과 사회를 바로 세워가는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이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으로 더욱 뜨겁게 부흥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의 구원, 그리고 주님 보좌 날을 예비하며 열방의 선교에 더욱 힘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보유분 특별공급”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서리풀터널 서리풀공원 서초역 교대역 예술의전당 남부터미널역 강남역 대법원 대검찰청

2024년 1월 5일 금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기독일보 2024년 1월 5일 금요일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455호

강남, 서초 최저 3억~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TYPE 2(전용면적: 58.82㎡)



TYPE 4(전용면적: 59.57㎡)

계약금 2천만원 (1차)

강남, 서초 줍줍!! 단지를 잡아라!!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강남 서초에서 누리는 주거에 최적화된
혁신 평면과
호텔식 컨시어지서비스,
트리플 역세권!
(3호선 남부터미널역, 2호선 교대역/서초역)

주택전시관 OPEN | 문의 02 525.0905

‘자유 향한 1만2천km 탈출기’ 탈북 인권 다큐, 1월 개봉

올해 아카데미 예비 후보 오른 <비욘드 유토피아>

올해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예비 후보에 오른 <비욘드 유토피아>가 이달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낙원이라고 믿고 자란 꿈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과 이들을 돋는 김성은 목사의 헌신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은 탈북 인권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에는 북한 인권 유린의 리얼한 장면과 자유를 향해 탈북을 하려는 사람들의 탈출기가 생생하게 담겼다. 특히 거짓 낙원인 북한을 탈출하려는 노씨 일가 족과 아들을 북한에서 구출하려는 탈북민 이소연 씨의 이야기가 안타까움과 함께 감동을 전한다.

이 영화가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한 1만2천km의 생생한 탈출기를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운동가인 갈렙선

교회 김성은 목사의 힘 이 커다고 한다.

김 목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교를 목표로 중국과 제3국에서 국적 없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회복에 힘쓰는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운동가다. 김 목사가 북한이탈주민을 돋는 데 삶을 바치고 헌신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중반 중국으로 선교활동을 하려 갔다 압록강에 떠나는 북한 주민들의 시신을 본 것 때문.

그는 초창기 탈북민을 돋다가 두만강 빙판에 넘어져 목에 철심을 박기도 하고,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간 1천 명이 넘는 사람을 탈북시키고 구조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김성은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김 목사는 자신의 인맥과 구출을 돋고자 하는 사람



영화 스틸컷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탈북민의 실상을 알리고 오랜 기간동안 탈북민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비욘드 유토피아>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한국에 오게 된 매들린 개빈 감독과 제작진은 영화를 완성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김성은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김 목사는

들을 극도로 보호했지만 <비욘드 유토피아> 제작진들의 노력과 영화를 향한 진심에 결국 도움을 주었다고.

그는 <비욘드 유토피아> 제작진에게 두 번의 탈북 시도를 함께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제작진은 목숨을 걸고 거짓 낙원인 북한에서 탈출하는 노씨 일가족과 아들을 북한에서 구출하려는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운동가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이소연 씨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

김성은 목사는 “탈북민의 실상을 이렇 게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 이 영화를 보고 관심과 변화가 생겨 고통받고 있는 탈북민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욘드 유토피아>는 올해 제96

김진영 기자

정동제일교회,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위해 2억여 원 기부

정동제일교회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2억여 원을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김황식, 이하 재단)에

최근 기부했다고 재단 측이 밝혔다.

재단 측은 정동제일교회으로부터 이 교회에서 기부금 모금을 주도했던 최재

분 원로 장로와 천영태 담임목사가 최근 사무국에 방문해, 교인들이 모금한 2억 100만원 전달받았다고 했다.

정동제일교회는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뜻도 밝혔다.

이날 최재분 장로는 포천시 영북면 면장을 지냈던 부친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부친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없었다고 강조하셨다”고 했다.

이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이 너무 늦었고, 우리 세대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높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치 있는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이승만 대통령이 사랑받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1885년 10월 설립해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로 기

록된 정동제일교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 20세가 되던 1895년에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재학당에 입학해 아펜젤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고종 폐위 음모 혐의로 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6년에 정동제일교회 명예 장로로 추대돼 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에 4만 7천여 명이 참여해, 기부금 86억여 원을 모았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www.lxhausys.co.kr

결국
LX Z:in이나,
아니거나

편의성에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창호, 수퍼세이브

LX Z:in

남편이 순교하고 홀로 남은 나이지리아 여성들

나이지리아 아다마와(Adamawa)주에서 반기독교적 폭력에 남편을 잃은 기독교인 여성 30명이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와 네덜란드 순교자의 소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재봉틀과 분쇄기를 수령했고, 그 기계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훈련받았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이 30명의 기독교인 여성이 자립할 뿐 아니라 반기독교적 폭력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새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여성들은 이미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의 다른 기독교인들을 돋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사역을 통해 도움 받은 두 여성의 간증을 소개했다.

34세의 마사(Martha: 보안상 성은 공개하지 않음)는 이렇게 고백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아가 된 2명의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무료로 훈련시키며 돋고 있습니다.”

28세의 도크스(Dorcas: 보안상 성은 공개하지 않음)도 감사함을 전했다. “남편이 폴라니 부족의 공격으로 세상을 떠난 뒤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순교자의 소리의 직업 훈련과 창업 프로그램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순교자의 소리는 팝박을 피해 피신하는 기독교인보다 팝박이 계속되는 현장에 머물기로 결단한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팝박받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때 한국교회 기독교인과 비영리 기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다마와 주에서처럼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팝박을 받는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를 이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 인들이 피신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공격자들이 더 대담해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더 가혹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살게 해주시고 전 세계 성도들의 지원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내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 여성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와 이라크 및 인도 일부 지역에 서 목격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에 그대로 남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명을 받은 성도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것이 바로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실제적인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지원하는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유라고 밝힌다.

“남편이 순교하고 홀로 남은 여성들에게 재봉틀과 분쇄기를 제공하고 작업 훈련을 시키는 사역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당한 기독교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독교인들이 공격당했을 때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는 방법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팝박받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독일보

‘한마음 한뜻으로 새 출발하는 새해 되길’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 2024년 신년인사회 종교계 대표 덕담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대표총회장·사진)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종교계 대표로 덕담을 전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경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살아야 한다”며,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 젊은이들이 활기차고 힘찬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여야의 구분이 없는 만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과 한뜻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해 이 자리의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총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향해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 신년인사회는 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등 5부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기자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 모습. ©한교총

그린닥터스재단, 19년 만에 삼천포 섬마을 왕진 봉사 진행

경남 사천시 신수도서 100여 명 진료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이 사장 정근과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현)이 세립 경남 사천시 삼천포 신수도를 방문해 왕진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봉사지역인 신수도는 19년 전인 지난 2004년 정근 이사장이 1년 동안 매주 두 차례씩 원격 무료진료를 해온 곳이다.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과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현)은 정근 이사장(안과·윤선희 원장(안성형·이상·정근안과병원·백석주 교수·부산백병원신장내과)) 등 의사들과 정복선 이사·주연희 간호부장 등 온종합병원 간호사 24명, 자원봉사자 조희역 목사 등 모두 60명의 봉사단을 꾸려 지난 12월 29~30일 이틀간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에서 무료 진료활동을 진행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수도를 찾은 그린닥터스봉사단은 선착장 인근 신수어촌계 사무실에 임시진료실을 설치하고, 이틀간 100여 주민들을 무료 진료했다. 외래진료를 받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급 영양제 처방을 받았고, 어깨나 하리,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은 물리치료까지 받았다.

정근 이사장은 “이번 의료봉사 때 19년 전에 원격 진료했던 몇몇 주민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에는 착잡했지만, 다른 분들은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어서 20년 뒤에도 다시 건강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새해 소망을 밝혔다.

그린닥터스재단이 이 낙도를 찾은 것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9월 12~13일 이틀간 그린닥터스는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꾸려 신수도에서 안과, 정형



그린닥터스재단 60명의 봉사단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에서 무료 진료활동을 진행했다. ©그린닥터스재단



삼천포 섬마을 왕진 봉사 진행 사진. ©그린닥터스재단

고 자랑했다.

정근 이사장은 또 여든셋 김령자 할머니 집에서 19년 전에 작성했던 김 할머니의 종이 진료차트를 보면서 눈 건강 상태를 살폈다. 김 할머니는 “눈은 끄떡없는데, 나이 들면서 자주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고혈압 등 여러 종류의 약에 의지하고 있다”며 세월의 무상함을 얘기하며 20년 만에 찾아준 정근 이사장과 그린닥터스 봉사단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은 초고속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직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본격 원격진료를 시범 실시했다. 정 이사장은 “당시 우리나라에 초고속인터넷망이 막 깔리기 시작하

고 인터넷 등장 등 정보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멀지 않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원격진료가 합법화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들보다 먼저 PC통신을 이용한 원격진료를 시도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2004년 10월 개성공단 내 응급진료소를 운영하는 대북사업자로 지정된 그린닥터스재단이 신수도에서 쌓은 원격진료 시스템을 개성공단 진료소와 부산 그린닥터스와 대학병원 간에도 도입 하려했다”며 “북한 측의 3통 정책, 즉 통행통관·통신 불가방침 탓에 활용하지 못한 건 아직도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존중과 배려 괴롭힘 없는 직장의 첫걸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은 아니신가요?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 거점교회 10곳 이상 세우고 출산장려금 인상

여의도순복음교회, 2024년 중점 사역 방안 발표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섬김 강화, 교회 직영 신학원 운영도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 측 제공

여의도순복음교회가 2024년 독립적 인 거점교회를 10곳 이상 세우는 한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을 섬기는 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회가 직영하는 순복음 영산신학원의 교수진 및 커리큘럼 등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신앙과 목회 문화에 맞게 전면 개편해 교역자 배출 및 수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일 시무식을 겸해 열린 지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목회방향을 내놓았다.

◆ 독립적 거점교회 10곳 이상 개척

이영훈 목사는 “현재 마포 영등포 용산지역의 성도들만 모여도 여의도 본 교회당은 차고 넘친다”면서 “교구 버스를 운영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이동 거리가 30분이 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은 거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도권에 분포하는 자성전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목회를 통해 성장해 독립적인 거점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섬김 강화

이 목사는 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계속해 온 사랑의 실천 사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굿피플과 연계해 소외계층에 1년 365일 ‘희망박스’를 속속적으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리팀재단을 통해 전문화한 다문화가정 및 국내 외국인들에게 대한 돌봄사업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

◆ 교회 직영 순복음영산신학원 운영

이 목사는 이와 함께 “여의도순복음 교회가 가진 성령론과 절대긍정의 신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신앙과 목회 문화를 체화한 목회자 배출과 수급을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세워서 운영한 순복음영산신학원을 교회가 직영 할 필요

이에 따라 김호성 부목사와 김민철 목사(홍보국장)에게 각각 학장과 교무 기획처장을 맡겨 교육과정과 교수진 등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력 인증 문제는 한세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했다.

김진영 기자

**존중과 배려
괴롭힘 없는 직장의 첫걸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은 아니신가요?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는 일도
못하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네~

오늘은 막내들이
장기자랑
하는 거지?

김대리! 오늘은
3차까지 무조건
가는거야!

김대리, 커피
안 타오고 뭐해?

“교회, 위기의 시대 하나님 ‘은혜·구원’ 맛보는 장소 돼야”



임성빈(기윤실 이사,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박사(사진)가 최근 기윤실(기독교윤리 실천운동) 홈페이지에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다.

임 박사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는 우리는 역사적 위기의 시대를 함께 경험하고 견뎌내고 있는 동료들이다. 세계는 하나님의 지구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다리는 낭만적 세계화의 구호가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마-중 갈등으로 무색하게 되었다”며 “심화하는 신냉전으로 자구촌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국가들은 ‘자국민 우선’과 ‘강대국 우선’을 말하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133편을 노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세계화의 모순으로 나날이 심화하는 지역국가계층 양극화,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지는 사회, 사회 계층 간 이동이 어려운 ‘세습 중산층 사회’로 상징되는 현대 사회의 모순적 상황, 디지털 전환과 함께 강화되는 확증 편향으로 인한 갈등 심화의 현실에서 시편 133편을 노래하기는 쉽지 않다”며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로 ‘공정한 삶과는 더 멀어진 각자도 생’이 현실이 된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경험하며 노래하고 꿈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는 ‘믿음’이라며 ‘성난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적 재난과 남북한 관계를 비롯한 세계적 갈등의 심화 상황에서도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힘은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했다.

이어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체의 전부가 아니며, 오늘의 어려움이 마지막 결론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며 “믿음은 우리에게 현재의 무력감과 열매감과 고통과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소망을 준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제자들이 탄 작은 배를 깨뜨려버릴 만큼 거센 파도지만 믿음은 이러한 일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고요하고, 잠자하여라’라는 말씀으로 바람을 그치게 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며 “그런데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진 후, 즉, 위기가 지나간 후에 제자들은 이 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임 박사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현상적인 위기의 극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준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이후에 더욱 믿음의 진정성이 중요해진다”며 “예컨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중에도 힘을 모아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와 교회의 위기는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면서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충성과 이해를 요구한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뢰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은혜이다. ‘오직 믿음’과 함께 ‘오직 은혜’가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해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뉴노멀을 이야기하며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시대, 강자 필승을 말하며 생존

을 위하여 끌리끼리 부족을 형성해 가는 오늘, 참 위기의 시대이지만,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오늘이 바로 은혜(Gabe)받은 이들이 과제(Aufgabe)를 수행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보고 실현하는 장소이며 도구가 되어야 한다.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지니고, 그래서 세상은 사랑하나 세상의 풍조는 거스르며 살 수 있는 신앙인이다운 신앙인이 되자”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고후 6:13)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으로써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한다”고 했다.

장자동 기자

“혁신과 변화로 제4창학 비전 이를 것”

한일장신대 2024년 시무감사예배 드려

한일장신대(총장 배성찬)가 최근 황기주기념체육관에서 시무감사예배를 갖고 2024년 새해를 맞이했다.

이 예배에는 서순석 총회 신학교육부장관을 비롯해 박남석 이사장과 이사진, 배성찬 총장과 교직원, 재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예배는 김은주 경건실천처

장의 인도로 김웅수 교무처장의 기도, 이사 이복생 목사(정읍새함교회)의 색소폰 축주, 서순석 목사(총회 신학교육부장관)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서 목사는 ‘벧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요즘 교회와 신학대학원이 위기라고 하는데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의지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일장신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소중한 일꾼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부를 받았다는 데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주권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라며 “ 이를 통해 한일장신대가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1년간 무보수 총장직



한일장신대가 2024년 시무감사예배를 드렸다. ©학교 측 제공

로 변화되어 성령안에서 꽂피우고 열매맺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배 총장은 “새해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며 “지난날 믿음의 공동체였던 한일 구성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 송구하다”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또 “우리 대학이 제4창학의 비전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1년간 무보수 총장직

을 수행하며 공동체 의견에 귀기울일 계획”이라며 “위기가 아닌 혁신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기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배 후에는 새 출발의 의미로 서순석 신학교육부장관과 박 이사장, 배 총장이 타종하고, 새해 덕담과 오찬을 함께 나누며 건강과 발전을 기원했다.

장자동 기자

‘교회친구다모여’ 등, 개척교회 180여 곳에 5700여만 원 기부

‘교회친구다모여’와 ‘햇살콩’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개척교회 난방비 지원 프로젝트’에서 838명이 기부한 5713만원을 개척교회 188곳에 각각 난방비 20만원, 식사비 10만원씩을 기부했다.

이번 모금은 지난해 12월 중순 전북 익산의 목회자 A씨 가정이 생활고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목사는 주일엔 카페를 운영하고, 12월 18일 익

산시 팔봉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A 목사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교회친구다모여 측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자극적이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입에 꺼내는 것조차 도 슬프고 무서운 한 평범한 가정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문장 한 문장 가슴을 찢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전 세상과 전혀 달라져

버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목회자가 생활고로 가족을 포함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떨어져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목회자 난방비 지원 사역을 하던 선교사 부부 ‘햇살콩’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작은 교회의 목회자 가정이 스스로를 훈자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개척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역자 양성과정 진행

22~23일까지 광주 성지교회에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대표 최새롬 목사)이 사역자 양성과정을 ‘광주&전남’ 지역에서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22일부터 23일까지 광주 성지교회(담임 이자한 목사)에서 열리는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의 제 3기 양성과정이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측은 이번 과정에 대해 “광주 광산교회, 선한이웃교회에 학원복음화 세미나를 진행했고 이후 5곳에 초·중·고등학교 기독교동아리가 세워진 지역”이라며 “이 열매들을 통해 광주&호남 지역 교회와 기독교사들이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자 양성과정을 광주&호남 지역에서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번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밝혔다.

이번 과정의 강사로는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의 대표 최새롬 목사와 오윤교교회 중등부를 담당하는 박성광 목사, 좋은교사의 학교복음화사역위원장 김선배 교사, 평촌서중양교회의 김신유 목사 등을 비롯해 실제 학교에서 동아리를 개설해 사역하는 이도훈 전도사(양평동 교회), 김준영 목사(아버지 마음교회), 정원우 교사(본오중학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최새롬 대표는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접목한 교회들을 통해 지역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고 있으며, 교회학교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고 있는 사례를 계속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의 기본 사역이 학교에 찾아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 사역자 양성과정 또한 지역교회와 기독교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도 시로 찾아가 진행하고 있다. 1기(안양), 2기(분당), 3기(광주&전남) 등으로 이어온 이번 과정은 ‘교회 ↔ 학교 ↔ 가정’을 잇는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를 지역교회에 인큐베이팅하여 지역교회를 통해 지역학교마다 기독교동아리&기도모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한편, 작년 11월에는 1차 ‘Wake up 광주&호남’ 학교연합집회에 1천여 명이 넘는 중고생들이 참여해 광주에 있는 학교와 캠퍼스에 기독교동아리&기도모임을 세우기로 결단한 바 있다. 이상진 기자

‘월터스토프 VS 칸트: 종교인가 이성인가’ 강독 모임

기독교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지성적 모임인 에라스무스가 2024년의 첫 번째 겨울 강좌로 ‘월터스토프 VS 칸트: 종교인가 이성인가’를 12월에 걸쳐 6회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종교의 한계 안에서의 이성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을 함

께 강독하게 된다. 이번 책은 칸트의 주요 저서인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를 겨냥해 쓰인 책이다.

강독모임을 이끄는 정제기 박사는 2022년 영남대에서 칸트 윤리학과 종교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 칸트학자로, 짚은 칸트학자의 시선에서 월터스토프의 저서를 꼼꼼하게 읽어내면서, 종

교와 이성의 관계에 대한 월터스토프의 입장이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달 29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며, 주교재로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저서 『종교의 한계 안에서의 이성』(김지호 옮김, 도서출판 100, 2023)을 가지고 진행된다.

이상진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 행복해요

아름사 모여라!
535개 아름사 도서관으로!

#신한카드 #아름사도서관 #꿈 #무한가능성
#상상력 #나희들이미래다 #금융으로일상을이롭게

책과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아이들 모두가 No.1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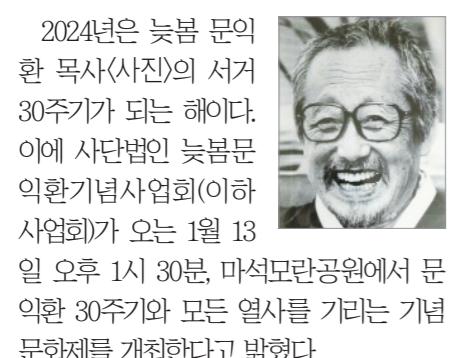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신한카드 아름사 도서관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가도록 국내외 총 535개의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디지털 컨텐츠를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1Lead by S 신한카드

‘민주열사와 함께하는 문의환 30주기 기념문화제’ 열린다



2024년은 늦봄 문의환 목사(사진)의 서거 30주기가 되는 해이다. 이에 사단법인 늦봄문화원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오는 1월 13 일 오후 1시 30분, 마석도란공원에서 문의환 30주기와 모든 열사를 기리는 기념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회 측은 “민주열사와 함께하는 문

의환 30주기 기념문화제에서는 늦봄 문의환 30주기와 모든 열사를 기리는 문화행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세계를 향해 한반도의 평화선언문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또 “기념문화제 외 8일

“이후 1년 동안 각종 문화예술 전시회, 평화학술제, 뮤지컬, 통일염원대회, 미

래세대 위한 온라인 평화 공모전, 출판물

발간 등의 행사가 이어질 것”이라 전했다.

또 사업회 측은 기념문화제 행사에 대

해 “약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

히고, “7월 31일까지 각각 통일의 집에서 ‘밥알들의 양심 展’과 근현대사기념관에서 ‘다시오는 늦봄 展’을 연계하여 전시 중”이라고 했다. 또 “기념문화제 외 8일

“늦봄의 꿈”과 19일 근현대사기념관에서 ‘다

시오는 늦봄 展’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이

라고 전했다.

사업회 측은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며, 이는 자주 없이

는 성취될 수 없다고 했던 늦봄 문의환의 30주기를 맞아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 드린다”고 했다.

한편 사업회는 “늦봄 문의환의 발자취와 그 삶의 가치를 기억하고 이어가고자 하며, 한반도 통일과 세계의 평화에 이

바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늦봄 문의환의 역사는 전시, 출판, 영화,

연극, 강좌, 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 될 수 있는 문화적 자양분”이라며 “희망을 잊어버린 현세대에게 늦봄 문의환의 민족통일과 인류평화의 비전을 전해 줄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역할하고, 늦봄 문의환의 삶을 통해 펼쳐진 실천과 업적을 대중의 언어로 온전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늦봄 30주기를 맞아 “늦봄 문의환

목사를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사회 각계각층(예술, 학계, 노동, 인권, 출판, 청년, 종교계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에 시민들에게 기념을 위한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늦봄 문의환 30주기 기념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라며 “기념위원회에는 24년 1월 3일 기준, 노동, 시민사회, 학계, 민주화운동 유가족, 정치권, 청년 활동가 등 각종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여 98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국 기자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준수 독려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이하 협의회가 오는 18일 오후 7시, 2024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개최한다. 이에 협의회는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공동담화문을 최근 발표하고, 기도 참여를 독려했다.

협의회는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자료는 인구의 약 64%가 이슬람교,

26%가 그리스도교(가톨릭 20%, 개신교 6%)인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 그리스도인 일치 단체에서 준비했다”고 밝히고, “국가적 안보 위기와 불안정 속에서 부르키나파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누가복음서 10장 27절의 말씀을 2024년 그리스도인 일

치기도주간의 주제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부르키나파소는 2016년 유력 지하드파의 공격에서부터 시작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무차별 테러리스트들의 공격과 무법 행위, 인신매매의 확산은 삼천 명이 넘는 사방자와 아백만 명에 이르는 실형민을 낳았고 전 영토의 22% 이상이 국가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

다의 기운이 생겨나, 이들은 힘을 모아 평화와 사회 통합과 화해를 위한 항구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부르키나파소 성도들이 녹 1027 말씀을 기도주간 주제로 선정한 것과 관련, 협의회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들의 나라를 괴롭히는 폭력을 이

기리라는 믿음에 기반 의 그들의 고백”이라며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맞이하여 아픔과 고통에 사로잡힌 이들의 상처를 돌보며 세

상에 봉사하도록 부르시는 소명이 주님의 선물인 일치를 향한 길임을 함께 깨닫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매년 1월 18일부터 29일

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준수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한우리교회·더불어사는사람들, 저소득층에 무이자 소액대출

한우리교회(담임 이정우 목사)와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대표 이창호)이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저소득층들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금융 실현의 실천을 위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우리교회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취약빈곤계층 대상으로 무신용, 무이자 소액대출지원기금을 마련해 ‘더불어사는사람들’에게 위탁하고, ‘더불어사는사람들’을 통해 재정문제로 힘들어하는 취약빈곤계층에게 긴급 재정을 지원한다.

향후에도 한우리교회와 ‘더불어사는사람들’은 최저 신용자 대상 착한 대출을 진행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각종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이창호 대표는 “기관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한우리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협약을 통해, 새로운 무이자대출 공유경제를 구축함으로 지역사회 어려

운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는 불법 사채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우리교회 담임 이정우 목사는 “앞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며 “기독교적 재정관과 성경적 구제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한우리교회 이정우 담임목사(왼쪽)와 더불어사는사람들 이창호 대표(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우리교회

푸이미, 겨울 잡화 및 의류 938개 기부

지미션 인터내셔널(대표 박충관)은 푸이미(대표 방태수)가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겨울 잡화 및 의류 938개를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부한 제품은 장갑, 목도리, 귀마개 등 의 겨울 잡화와 의류로, 지미션의 교회 바자회 캠페인 지원 및 나눔가게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수익금은 국내외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미혼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된다.

푸이미 관계자는 “추운 겨울,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날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물품 기부를 이어가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미션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푸이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식을 마치고. ⓒ지미션

“후원물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푸이미는 지난해 총 2번의 기부를 통해 누적 3천만원 상당의 겨울에 유용한 물품을 후원하며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사단법인 지미션은 교회 및 선교사,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물품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양해보시길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준에 제정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일상되거나 보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급전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정신주기 및 최대 정신나기가 나를 수 있으며, 정신나기로 인해 발생한 사망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만료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구비되어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자의 해약금액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준 1만원(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순예보입법이 상의일 제8277호(2023.06.05~2024.06.04)

KB손해보험

임실교회, 전주예수병원에 발전기금 후원

예수병원(병원장 신종식)은 전북 임실군 임실흉을 이도리에 터를 잡은 임실교회(담임 송희종 목사)가 병원 발전기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송희종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마음으로 정성 을 다했다”며 “예수병원이 지역사회를 위한 현신과 노력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죽매제 역할을 성도들과 함께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1920년 10월에 창립해 올해 104주년을 맞이한 임실교회는 100주년 기념으로 2020년 현 위치에 새 성전을 신축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임실 공부방 △부설 은빛경로대학 △다문화가정 한글 교실 △희망아리아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신종식 병원장 유년 시절 모 교회인 임실교회는 2024년 예수병원 발전을 위한 첫 기금을 기탁했으며, 예수병원 발전기금 후원은 지역사회에 폭넓은 후원인

들과 교회들이 동참해 병원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노형구 기자

“사명이 있는 사람, 결단코 허무한 인생 되지 않는다”

2023 남가주 교회 송구영신 예배 스케치(1)

지난 12월 31일 자정과, 1월 1일 새벽, 남가주 교회들은 교회를 찾은 성도들의 발길로 분주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

남가주의 많은 성도들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아왔고, 때로는 찬양으로 지난 한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오길 기도했다.

◆은혜한인교회 <허무한 인생이 감격으로 넘치는 인생으로>

은혜한인교회는 오후 10시 <허무한 인생이 감격으로 넘치는 인생으로>(시편 90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극복하고 감격이 넘치는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묵상했다.

한기홍 목사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른다. 1월달인데 벌써 12월이 된다. 세월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낀다. 세월 앞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나의 삶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려야 할 것인가? 사람들이나 나 이를 들면서 조라해지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하나님 계획은 절대 그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면 안된다. 감격스러운 새해, 내일이 기다려져야 한다. 이런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 감격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 - 첫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세번째,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하면 감격의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첫째,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시편 90:1-2) 육체를 가진 우리는 불과 몇 십년을 산다. 육체는 한계가 있다. 육으로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육신의 한계, 작은 생각 가운데 둑여 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길 바란다.”

“두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들였다.(시편 90:3) 죽음이 왜 생겼는가? 죽음이 왜 인간에게 있는가? 죄 때문이다. 모세는 인간이 이렇게 늙고 연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임을 알았다.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고 죄의 저주로 심판을 받고, 땅은 영경퀴를 내고, 사람은 고통과 슬픔이 찾아 오게 되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심판 때 문에 멸망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우리 실상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는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살 길이 열렸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22) 인류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허무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살 길이 열려진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짧다는 것은 허무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히 살 그 세계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당히 무의미하게 살 수 없다. 모세는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사는 인생에 대해, 베드로전서 4장 7~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설명했다.

“이 세상에서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천국 가기 전에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사랑해도 얼마 시간이 없다. 새해에는 좀 더 남을 대접하고, 부지런히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황금률이다.”

“네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과 기쁨을 구하였다.(시편 90:13-15)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슬픔과 수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 세상의 삶이 곤고하고 수고하고 슬픔이 많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불순종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긍휼을 구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있으면 승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기홍 목사는,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을 사명의 발견과 사명의 성취에서 찾았다.

“다섯째, 힘들고 어렵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허무한 인생이 안되고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사명을 위해 자신을 다 쏟아 부으니 허무하다 느낄 시간이 없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나성순복음교회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라>

나성순복음교회는 예수님의 여정을 주제로 한 칸타로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리며 새해를 맞이했다. 진유철 목사는 “엄청난 사건, 위기, 갈등의 소식을 들었다. 잔잔한 곳에서는 유능한 복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 가 겪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2024년을 멋지게 날아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희망을 선포하며 칸타타의 시작을 알렸다.

칸타 이후 전도상과 우수구역사의 수상식에 이어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라”(눅 4:18-19)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2024년이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희년이 지난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님 역사의 중심인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살이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땅을 분배했다. 그런데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땅을 남에게 넘겨주고 돈을 벌려 쓰는 일들이 생긴다. 또 벌린 돈을 깊지 못해서 자식을 종으로 넘겨주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가정과 국가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배한 원래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게 하셨다. 지난해 팔 수밖에 없던 땅을 희년이 되면 돌려받는 것이다. 종되었던 사람들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해방되게 하셨다. 또한 모든 빚은 탕감 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놀라운 은혜의 소리였고 희년은 모두에게 복된 해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종이 되길 원치 않으셨고 빚으로 고통받길 원치 않았다. 희년을 맞이하면 병자도 일어났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소망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년을 기다렸다. 희년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롬 8:1-2) 저는 이제까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만나 보았다.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 미약과 알콜에 망가진 사람, 질병의 고통에 빠진 사람, 탐욕에 몸부림치며 가정이 망가진 사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놀라운 해방과 자유가 임한다는 것은 한번도 변하지 않는 진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유철 목사는 이 해방과 자유가 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며, 그럴 때 내 능력과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유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해방과 자유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이다. 그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시마라는 말씀에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지만,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이민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선포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이 주

시는 놀라운 역전승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된다. 주님의 해방과 자유가 내게 누리지기 위해서는 선포해야 한다. 어떤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직장과 사업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선포하는 주님은 승리를 주신다.

내 능력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질병, 사망보다 크다.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2024년은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선포했다.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들이고 충만해야 한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내게 없었던 능력이, 내게 없던 비전이, 내게 없던 용기가 생겨난다. 그래서 희년의 예수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베델교회 <주의 뜻이면>

베델교회는 <주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3-17절,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욕망

을 내려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되심을 인정해야 할 것을 설교하며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지막을 주관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생애는 안개와 같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죄다. 그 여러분의 계획이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우리에게는 교만함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잊어버리는 것 중의 하나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다.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라는 자랑이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로는 비교도 안되는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셨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된 것이 더 낫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새해가 밝아 올 것이다.”

<계속> 토마스 맹 기자

교협, CBMC 공동주최 신년 조찬기도회 앞둬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류근준 목사)와 북미주 CBMC 중부 연합회(회장 진유철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년 기도회 및 하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조정의 말을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애틀랜타 지역에 모든 한인교

회들의 회복을 위하여, 애틀랜타 한인 가정들의 보호하심을 위해, 애틀랜타 한인 사회의 보호하심을 위해, 애틀랜타 한인 기업과 일터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한다.

앤더슨 김 기자

소화·정장·변비·영양에는 일반의약품 Since 1956 원기소플러스 정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약품 | 주| 인터넷 창에서

원기소플러스, 원기소 를 검색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모·효소·유산균·복합제제

腸(장)은 비우고, 영양은 채우고 소화력은 높이세요

- ✓ 효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줍니다
- ✓ 유산균은 저하된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 ✓ 효모속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 효모속 비오틴 성분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할 수 있습니다

| 효능 · 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장, 변비, 영양, 과식, 체함,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용 방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

영감리교, '남편'과 '아내' 용어 사용 금지하는 지침 발표

영국 감리교회는 최근 '포용적인 언어 가이드'를 발표해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용어 사용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한 용어가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 지침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대화에 용기를 갖고, 때로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듣고 상처를 주는 언어를 회피하고, 듣는 방법과 말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으며, 이 지침은 6개월마다 업데이트된다.

이 지침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삶에서 표현되는 방식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다"는 생각을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고 '남편'과 '아내'를 용어의 예로 제시했다. 이 지침은 적절한 대안으로 '부모', '파트너', '자녀', '보호자'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이 지침은 이어 "감리교인들이 공통 문화에 의해 소외되거나 악마화된 소수자들을 다룰 때 '민감하고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권고받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범주를 나열한다"고 했다.

지침은 '노인'과 같은 용어를 피해 '연령차별'을 피하고, '인종대신' '민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해 '반인종차별적 언어'를 수용하며, 개인의 이민 신분이나 영어 실력을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언어를 피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침은 반유대주의적이고 이슬람 혐오적인 수사도 권장하지 않으며, 또한 감리교인들이 장애인과 신경적으로 다원화된 이들, 정신질환자를 대할 때 용어를 주의 깊게 다루도록 권장한다.

지침은 영국 감리교회가 "성소수자(LGBT+)"를 포함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고, 개인이 식별하기로 선택한 대명사를 포함해

개인이 선호하는 언어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이 교단은 2021년 동성결합 축복을 승인하고 동거 부부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침은 "개인이 스스로 선호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지침은 독자들에게 좌파 동성애자 명예훼손 반대 연합(GLAAD)과 영국의 LGBT 자선 단체인 스톤월을 포함한 비영리 단체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교단의 대변인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포괄적인 언어 가이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교회가 가정을 하거나 부주의하게 화를 내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삶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과 대화할 때 이것이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영국 감리교

켈빈 로빈슨 신부는 영국 감리교회 지도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것은 효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네오마르크스주의적 시도의 징후라고 했다.

로빈슨 신부는 X에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 성에 규범성을 무너뜨리려는 비판적 이론이다. 그것은 더 이상 무질서한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모든 것에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판적 이론은 네오마르크스주의이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다.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한다. 유행하지만 유독 한 이 이데올로기의 방식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든가"라며 "감리교회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보코하람에 참수된 나이지리아 목회자 자녀 결혼식 참석한 美목사

미국 뉴욕의 한 목회자가 지난 2020년 테러단체 보코하람에 의해 참수된 나이지리아 목회자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받는 형제들과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사무스 브론스 인피니티성경교회 선교목사로 섬기며 '리딤'(REDEEM!) 사역을 운영하고 있는 윌리엄 데블린 목사는 인권 변호사 엠마누엘 오케비와 함께 베뉴 주 마쿠르디에 소재한 성 베드로 교구에서 열린 아그네스 안디미와 가브리엘 에구우루브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이번 결혼식의 신부인 아그네스 안디미의 아버지인 라완 안디미 목사는 아다마와주 미처카 지역 방자치단체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 전 회장이었으며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된 지 몇 주 뒤인 지난 2020년 1월 처형됐다. 결혼식은 그 사건 이후 4년 만에 거행됐다.

자녀 아홉을 둔 라완 안디미 목사는 극단주의자들이 공개한 영상에서 하나님을 친양했다.

결혼식 후 포토타임에는 데블린 목사와 오케비 변호사가 가족들로부터 사진을 함께 찍자는 초대를 받았다. 데블린 목사는 이 일로 인해 너무 감동을 받아 울었다고 회상했다.

데블린 목사는 "우리 둘 다 순교한 목사님의 사모님과 팔, 신랑의 초대를 받아 순교한 목사님을 위해 그 자리에 서는 영광을 누렸을 때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했다.

데블린 목사는 안디미 목사의 아내인 메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오케비 변호사와 함께 시작한 프로그램인 예수 치유 트리우마 모임을 통해 그녀를 만났다.

데블린 목사와 오케비 변호사는 플라토주를



윌리엄 데블린 목사(맨 왼쪽)가 메리 안디미(왼쪽) 옆에 서 있다. 엠마누엘 오케비 변호사(맨 오른쪽)가 신부 아그네스와 신랑 가브리엘 옆에 서 있다. ©Egwurube 부부

포함한 다양한 도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오케비 변호사가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테러 피해자를 초대하여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함께 일 할 수 있었다.

데블린 목사는 결혼식에 미국의 다양한 기독교 교파로 구성된 상위 조직인 CAN과 관련된 다른 목회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순교한 목사를 기리는 행사에 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결혼식 후 데블린 목사와 오케비 변호사는 2011년 성탄절에 37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달라의 성 테레사교회 폭탄테러 사건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성탄절 기간,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또 다른 테러가 발생했다. 폴라니 무슬림 목동들 중국 단주의자로 추정되는 태러리스트들은 12월 23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폴라니 주의 기독교인이

대다수 거주하는 지역 여러 마을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2백여명이 사망하고 3백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케비 변호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수십 년 간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해 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격이 일박했다는 사실은 군이 12시간 전에 통보받았다고 한다.

오케비 변호사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노력이 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현 행정부에 "살인자를 찾아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산 채로 불태워지는 상황에서 세계는 나이지리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부기구인 국제시민자유법치협회가 발표한 2023년 4월 보고서 추정에 따르면, 2022년 나이지리아에서는 5천68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고 3천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납치되었다.

이미경 기자

폼페이오 "바이든 정부서 美억지력 쇠퇴 가속화… 북·중·러 매우 위험"

"이스라엘·중동 뿐 아니라 본토 미국인에게도 위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내가 재임하던 4년 동안 우리가 구축한 억지력의 붕괴 속도를 높이도록 허용했다. 이는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쳤고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기 미국 사람에게도 위험하다"며 "넓게 열린 남쪽 국경과 미국이 나서서 가장 신성한 가치를 지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북한·중국·

러시아 지도자는 여기 국내에서도 매우 위험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 의지를 내비친 일을 두고 무력으로 이를 가능하게끔 미국이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시 주석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대만을 험으로 점령하도록 뒀어서는 안 된다"면서 "하와이 알래스카, 광 등을 포함해 우리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정찰 풍선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 안보를 해치도록 방지해서는 안 된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몰아붙였다.

이명동 기자

헤즈볼라 지도자 야즈벡, 레바논 국경서 이군 폭격에 사망

이스라엘 폭격으로 경호원 3명 등 7명 동시 피살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의 교전 중 헤즈볼라의 고위 지도자 후세인 야즈벡과 경호원 3명 등 대원 7명이 3일(현지시간) 동시에 피살되었다고 레바논 현지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레바논의 알자니드 TV 보도에 따르면 야즈벡과 3명의 경호원들이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곳은 레바논 남부 나쿠라 마을의 한 주택에서였다. 다른 3명의 헤즈볼라 대원이 폭격으로 숨진 곳은 남부 마르카바 마을의 한 주택이었다.

고 레바논 국영 NNA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폭격과 중화기 포격으로 인해 레바논 남부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2명의 대원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서는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대한 보복전을 시작하자 이에 대해 수십 발의 포격으로 대응 공격을 시작하면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차미레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체크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감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동 저율을 국유자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코 선별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라인)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우리금융그룹

우리라는 가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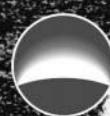
앞이 보이지 않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날

우리금융그룹은
청년들의 한 걸음 앞에서
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기에
도전에 드는 부담은 줄이고
목돈을 모을 기회는 늘려서

어두운 현실에 꿈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청년들 곁에
우리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서울대병원 “이재명, 이송 후 1시간40분 수술… 9mm 봉합”

서울대병원 4일 수술경과 등 브리핑
“순로롭게 회복… 합병증 지켜보는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측이 “수술한 다음날 병실로 이동해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 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4일 서울시 종로구 대학교로 71,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

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혈전 등 합

병증으로 인한 다른 장기 손상이 나타 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민 교수는 “좌측 목 뒤틀 흉쇄유돌근 위로 14cm자상이 있었다”면서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 손상과 감염, 혈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우려가 있어 경과 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칼로

인한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해 뇌경동맥 손상이 있었고, 기도 등의 다른 부위 손



민승기 서울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 신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치료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상도 배제할 수 없어 애초 이송됐던 부산 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민 교수는 “복 부위의 자상 크기보다 신경, 기도 등 어떤 부위가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혈관 재건술의 난이도도 높아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전문의의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목정맥 둘레의 60% 정도 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떡이 고여 있 었다”고 말했다.

수술은 지난 2일 오후 4시20분부터 오

후 6시까지 약 1시간40분 소요됐다.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이 대표는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 일반실에 입원 중이다. 칼날이 피하지방과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 내경정맥에 9mm 정도 상처가 났고 이를 확인해 봉합했다고 한다.

수술 경과 등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민 교수는 “2차 감염이 우려돼 충분히 세척했다”면서 “수술 부위 출혈 발생, 혈전 등 합병증이 생겨 다른 장기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행히 잘 회복 중이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 대표의 수술 경과 등에 대한 브리핑이 뒤늦게 열린 배경도 밝혔

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 브리핑을 준비했지만, 전문의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 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해선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중 외상 환자 특성상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면서 “지금은 (이 대표가) 많이 회복 돼 언론 브리핑에 보호자인 부인이 동의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이 대표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당일 갑자기 취소했던 바 있다. 백영미 기자

한동훈, ‘586 청산’ ‘사회 격차 해소’ 카드로 중도층 잡기

70·80·90 비대위원 전면 내세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취임 후 세대교체론과 사회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내세우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 핵심세력인 운동권을 청산하고, 진보에 익숙한 어젠다였던 서민과 약자보호를 부각하며 중도청년층을 두루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 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

정치인을 기득권으로 몰아세우며 세대교체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동권 특권세력과 개발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인용하는가 하면, ‘국민’ 대신 공공선을 추구하며 함께 한다는 의미의 ‘동료시민(Fellow Citizen)’을 자주 언급하며 ‘젊은 비정치인’으로서 본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총선을 100여 일 남긴 시점에서 남은 기간 전 사회적인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하겠다

고도 밝혔다.

취임 이후 이재명 대표와 야당 때리기에 집중하는 대신 피부에 와닿는 정책 제시를 통해 중도층에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야만 현실의 시민 삶이 나아진다”며 “이번 총선에서 교통·안전·문화·지안·건강·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없애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엔 대전시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저는 앞으로 100일 남은 총선에서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격차 해소는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총선에서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격차의 유형에 대해서는 “교통이 너무 힘들다. 그런 ‘교통격차’,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뮤지컬 하나 보려면 서울 와야 하는 ‘문화격차’, 파출소 빈도 차이가 나는 ‘치안·안전격차’”를 언급하며 “생활 곳곳에 불합리한 격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취임한 이후에 지역의 공천 신청자 명단을 안 봤다. 지역의 현안을 먼저 봤다”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서진 기자

동화약품



SINCE 1897

무좀, 이젠 붓으로! 한번에!

*이 약은 단 1회 적용한다.



권순우
한국 최초 남자 프로테니스 통산 2회 우승

일반의약품

이재명 39%·한동훈 35%·김동연 오세훈 4%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야 지지층 결집 양상”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 차기 대통령감’을 다자 간 대결 구도로 묻는 질문에 응답자 39%가 이 대표를, 35%가 한 위원장을 각각 선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오세훈 서울시장·이나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자 지지율 4%를 기록했고, 이어 흥준표 3%, 원희룡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박용진 민주당 의원 1% 순이었다.

‘기타 다른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 ‘지지후보 없음’과 ‘잘 모르겠다’는 각각 3%, 2%였다.

여론조사기관은 “이전 조사 대비 여야별 특정인물, 즉 이 대표와 한 위원장 중심으로 결집화하는 집중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후보 선호도를 여야 구도로 놓고 봤을 때, 여당 후보 5명(한동훈·오세훈·흥준표·원희룡·안철수) 표심 합은 45%, 야당 후보 4명(이재명·김동연·이나연·박용진) 표심 합은 48%였다. 여야 후보 선호도 총합으로 놓고 보면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p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 선호도 조사 세부 특성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광주·전라·제주(67%), 50대(48%), 40대(44%), 국정수행 부정평가(66%), 민주당 지지층(82%)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한 위원장 지지세는 대전·충청·세종·강

원(42%)과 대구·경북(41%), 여성(36%), 70대 이상(55%) 고 연령층, 국정수행 긍정 평가(78%), 국민의힘 지지층(75%)에서 강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에선 응답자 30%가 이 대표를, 응답자 16%가 한 위원장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봤다. 이어 이 전 대표는 11%, 김 지사 9%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기상번호)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재완 기자

이준석 신당,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명 돌파

“늦어도 1월말까지 신당 창당 완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준비하고 있는 ‘개혁신당’(가칭)이 온라인 당원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2만 명에 2만 명을 돌파했다.

4일 오전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면서 “사도당 창당 기준 1000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서 전무후무한 시도일

월까지 완료될 것이며 중앙당 창당대회가 20일까지 열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천하람 위원장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일 중으로는 창당 요청을 갖출 것’이라며 “중앙당에 행정절차 처리하는데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언) 중 김용태 전 최고 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을 탈당해 공동창당준비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회장을 개혁신당 당원가입 안내절차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천하람 위원장과 허은아 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신당 2만명 돌파를 밝히며 신당 창당이 1

월까지 완료될 것이며 중앙당 창당대회가 20일까지 열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천하람 위원장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일 중으로는 창당 요청을 갖출 것’이라며 “중앙당에 행정절차 처리하는데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오는 20일에는 창당대회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다 예상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허은아 위원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창당일 시기에 대해 ‘원래 목표는 20일 전까지 하는 것’이라며 “늦어지더라도 1월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 7부 능선은 넘은 것”이라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정강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당설 기자

검찰,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파악하고 돈 봉투 수수자 사수도 이어가겠

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

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구속 전후 각 1차례 조사가 진행됐는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라”고 하고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류인선 기자

바르지오® 원스
외용액 (테르비나핀염산염)



윤 “국민 원하는 문제 즉각 해결… 공매도 계속 금지”

부처업무보고 민생토론회로 개최… 국민 70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고, 민생을 알뜰하게 쟁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일시 금지 시점과 관련해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전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수출 7000억불, 외국인 투자 350억불, 해외 수출 570억불 등 올해 목표도 제시했다.

국민 고충을 직접 듣고 즉각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해마다 연초에 진행되던 부처업무보고를 올해부터는 민생토론회로 개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 세, 고용률 상승 등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쟁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아직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미흡한 것이

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이나 종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 하지 않았나. 그걸 깨야 한다”며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포에서 가진 타운홀 간담회에서 나온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완화 ▲택시 플랫폼 수수료 인하 ▲일시적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국민 70명이 참석했다. 24명은 화상으로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걸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근로자, 청년, 주부 등 국민 70명이 참석했다. 24명은 화상으로 연계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병한 기획재정부 1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운 정책실장, 이도운 흥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기정 의전비서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최진웅 국정메시지비서관,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박미영 기자

김진표 “DJ, 외환위기에도 R&D 늘려… 인구절벽 해결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관리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하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히”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 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인구절벽 문제를 제시했다.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하고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3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며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 야이 무효일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도 확립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준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미국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의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절벽 문제 해소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태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 빼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가 과제를 해결

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원회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편 등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며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희 조성皓 기자



*한월별수 : 2023.10.23 기준

정부,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 공단 폐쇄 수순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재단)이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전면 종단에 접어든 지 8년째인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단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관이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대응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통일부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26일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이 개성공단을 바라보던 모습. ©뉴시스

대북지원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이후 재단이 해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왔다.

남빛나라 기자

**현열하는 당신이 있기에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눔에 앞장서 주시는
현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PLO 출신 기독교 개종자, “가자지구서 대규모 전도” 예상

1990년대에 패타(Fatah) 정당 및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회원이었던 전직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가자지구의 무슬림들을 기독교로 전향하도록 준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타이시르 타스 아부 사다(73) 씨는 지난 주말 트리니티 방송 네트워크(TBN)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계 미국인 언론인 조엘 C. 로젠버그에게 “중동을 뒤흔드는 폭력과 파괴의 규모가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시간의 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진후”라고 말했다.

사다는 또한 이번 전쟁이 지역 내 많은 무슬림들이 하마스와 급진 이슬람교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마음을 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태어난 전 팔레스타인 무슬림인 그는 전쟁이 끝나면, 대규모 전도를 위해 가자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사다는 “하마스는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념”이라며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계획 역시 그 일부이며, 거기에 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아부 사다는 자서전인 ‘한때 아라파트의 사나이(Once an Arafat Man)’를 쓴 저자이다. 주이시루츠닷넷(JewishRoots.net)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는 1967년 6월 전쟁 이후 유대 이스라엘인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린 시절 가족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로 이주했지만, 그는 도망쳐 결국 팔라에 합류했고, PLO 전 의장 애세르 아라파트의 개인 운전사, 저격수 및 암살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사다는 간증에서 “6일 전쟁 이후 나는 신경쇠약에 걸린 것 같았고 종교심이 계속해서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인류와 규모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며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이 그들보다 많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다”고 회상했다.



과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소속 테러리스트 출신인 타이시르 타스 아부 사다가 2023년 12월 트리니티 방송 네트워크(TBN)에 출연했다. ©TBN 유튜브 캡처

그는 “나는 한 번 더 우리 지도자들이 행을 떠나 그곳에서 미국 여성과 결혼했으며, 19년간의 친분이 깊은 기독교인 찰리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사다는 1993년 찰리가 자신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할 당시 영적으로 고로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찰리는 당시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려면 유대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다는 “나는 완전히 몸이 얼어붙었고,

어떻게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며 “그는 내가 유대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대부분의 아랍인들과 마찬가지로 내게 있어서 착한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 뿐이었다”고 했다.

찰리가 신약성경을 열어 요한복음 1장 1절을 자신에게 읽어주었을 때, 사다는 겁이 나고 깨렸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자, 자신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다가 기절했다. 그는 예수가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뒤, 의사

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사다와 그의 가족은 무슬림을 위한 복음 전도 단체 ‘이스마엘을 향한 소망(Hope for Ishmael)’과 중동의 빙곤층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비영리 단체 ‘희망의 씨앗(Seeds of Hope)’을 설립했다.

사다는 로젠버그에게 “가자지구의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며 “현재 팔레스타인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소식통들이 이번 분쟁의 여파로 영적 수확이 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사다는 “그것이 내가 성지로 돌아가 가자지구로 이주하여 재건에 참여하려는 이유”라며 “나는 모든 고통과 일어난 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그들이 기만히 앉아 있지 않고 ‘왜?’라고 물을 것을 확인한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진 김 기자

美낙태권 반대, 세속 공화당원이 종교 민주당원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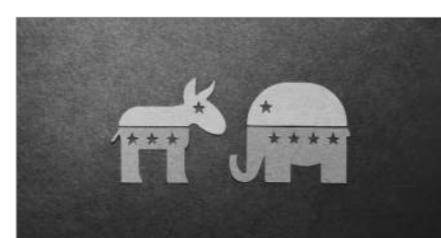
미국에서 종교적인 민주당원들은 종교적이지 않은 민주당원들과 낙태 문제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종교적인 공화당원들은 그렇지 않은 공화당원과 낙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커져가고 있다.

미국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라이언 버지(Ryan Burge)는 1일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Substack)에 종교적인 민주당원과 세속적인 공화당원이 가진 견해 차이가 세속적인 민주당원과 종교적인 공화당원의 견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했다.

그는 2008년과 2022년 공동 선거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두 정당의 유권자를 ‘세속적’ 및 ‘종교적’이라는 두 범주로 분류했다.

그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두 정당 모두에서 세속 유권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공화당의 경우 종교 유권자가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인 반면, 민주당은 세속 유권자가 종교 유권자를 거의 따라잡았다. 2008년 종교 유권자는 민주당 유권자의 64%를 차지했으며, 2022년에는 52%로 감소했다. 공화당의 종교 유권자는 2008년 87%에서 2022년 79%로 줄었다.

버지는 “다르게 말하면 – 민주당에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상징하는 당나귀와 코끼리. ©Kelly Sikkema/Unsplash

세속 유권자당 종교 유권자가 한 명씩 있지만, 공화당에는 세속 유권자당 종교 유권자가 네 명이 있다”며 “따라서 세속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좌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선거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낙태에 대한 양당의 세속 유권자 및 종교 유권자의 견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세속 민주당원과 종교 민주당원은 네 그룹 중에서 가장 낙태를 지지한 반면, 종교 공화당원은 제한적인 낙태 정책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종교 공화당원은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을 가장 많이 지지했으며(27%), 종교 민주당원(13%), 세속 공화당원(13%), 종교 민주당원(6%)이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의 세속 민주당원(93%)과 종교 민주당원(79%)은 “여성의 선택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항상 허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반면, 세속 공화당원(49%)과 종교 공화당원(25%)은 절반 이하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했다.

종교(81%) 및 세속(68%) 공화당원의 상당수는 “임신 20주” 후에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종교 민주당원은 41%, 세속 민주당원은 21%만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낙태에 대한 양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는 종교 공화당원(77%)과 세속 공화당원(58%)이 종교 민주당원(26%)과 세속 민주당원(11%)보다 훨씬 높았다. 2010년에는 세속 민주당원의 70%가 어떤 이유로든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2022년에는 그 수가 87%로 증가했다.

낙태에 대한 지지는 같은 기간 동안 세속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더욱 크게 증가했다. 2010년에는 종교 민주당원 중 절반 미만(42%)이 어떤 이유로든 합법적인 낙태를 선험했지만, 2022년에는 거의 두 배인 78%로 급증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낙태에 대한 여론은 정반대로 변해왔다. 1977년 세속 공화당원의 70%가 여성의 요구에 따른 낙태를 지지했지만, 2002년에 그 수가 50%로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55%로 약간 증가했다.

버지는 종교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1977년부터 1992년까지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지지율이 약 37%로 꾸준하게 유지되었으며, 2000년에는 약 30%로 감소했다가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 세속 민주당원의 75%는 여성의 더 이상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않으면 태아를 낙태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2022년에는 세속 민주당원의 95%가 피임의 한 형태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같은 기간 동안 종교 민주당원 중 40~50%가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낙태 허용을 지지하다가, 2022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 견해에 동의한 세속 공화당원은 2000년 이후 약 60%에 머물렀으며, 종교 공화당원들은 1970년대 약 47%에서 2004년 이후 약 30%로 감소했다.

유진 김 기자

에스토니아, 동성결혼 합법화… 옛소련국 중 처음

에스토니아가 1일(현지시간) 옛소련 연방 국가 중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지난해 6월 에스토니아 의회를 통과한 가족법 개정안이 이날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의회는 당시 동성 결혼 합법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찬성 5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성커플은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혼인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첫 신청서는 2월 2일까지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처리 기간은 1~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가디언은 에스토니아가 1991년 옛소련연방에서 독립하면서 동성애를 비범죄화했지만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프라이드 행사 중 탈린의 한 주점에서 성소수자 목사가 흉기에 목이 찔리는 일이 있었고, 성소수자 군집병들은 별도의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원 기자

김포, 일산 등 주요 도심 속 단독주택 1년에 1억씩 올랐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여가, 위라밸, 페적성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더욱 늘어나자 주택 트렌드도 빨르게 변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획일화된 아파트가 아닌 독립형과 페적성을 갖춘 단독주택이 뜨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페리함은 물론 단독주택의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보통의 단독주택과는 달리 신도시, 택지지구에서도 중심부 일대, 주요 입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블록형 단독주택은

집값도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5월 공급된 1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의 분양가가 5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 11월 9억 7,000만 원에 거래돼 약 4년 6개월 만에 4억 5,000만 원이 올랐다. 1년에 1억원씩 오른 셈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2018년 7월 공급된 K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역시 전용 84㎡ 분양가가 7억 1,900만 원 대비 지난해 5월 10억 1,000만 원에 거래돼 약 4년만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1군 건설사의 브랜드가 적용 됐을 때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다.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2월 공급된 G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 분양가 5억 7,600만 원 대비 2021년 11월

11억에 거래돼 4년 9개월만에 5억 2,400만 원이 뛰었다.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오른 것이다. 1년에 1억을 초과하는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도 적용되고,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위치해 희소성이 높다”며, “공동주택의 편리성과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갖춘 만큼 1년에 1억씩

오르는 등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군 건설사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적용됐으며,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분양 중으로 관심을 모은다. 현대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아 안전한 사업신뢰성을 확보한 단지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는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 규모의 대단

지로 지어진다. 단지는 계약금 5% 무이자 대출 지원, 중도금(50%) 안심 확정금리 4.5%(이자 후 불체)를 적용해 입주 때까지 비용 부담을 낮췄다.

한국부동산원은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투자 가치가 높다”고 분석했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에 걸맞게 자연환경, 생활인프라를 모두 품은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독바위공원, 선돌공원, 옥정생태숲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학교, 중심상업지구 등 도심도 가까워 인프라 이용이 편리한 것이다. 인근 옥정중앙공원, 옥정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인근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으로 접근성도 우수한 만큼 뚜렷한

한 채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또한 인근에 다수 계획된 교통호재도 단지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

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창동역 구간 지하화 문제가 해결된 GTX-C노선 사업도 올해 착공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예정돼 있어 프리미엄 상승도 기대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경관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문의: 031-858-9800



▲양주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시행/수탁 모금원 시공 현대건설 시행/위탁 미래개발2

*※상기 CD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우기 위하여 일부 주장을 보이지 않게 표현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재된 계획은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대행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견본주택 개관중

(견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4)

031)858-9800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김창환 목사
서울 강서교회



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여기저기서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고 있다. 동성끼리 가정(?)을 이루고 동성 결혼을 조장하고 심지어 동성 결혼을 축복해야 한다는 말들이 남무하고 있다.

1.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의 대한 성경의 경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 육체적·성적·정신적·자작·영적 결합으로 일평생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부부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부부의 행복한 생활로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의 복도 주셨다. 그러나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셨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 가라”(레 20:13).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

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으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26-27).

성경은 결혼 밖의 부도덕한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라 가르쳤다. 동성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

2. 창세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성한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을 때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 가리라”(레 20:11). 성경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지금은 어떤가?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자신들의 아내를 서로 바꿔어 가면서(스와핑, 부부 교환) 성욕을 채우려는 무리들이 무수히 많다. 그런데도 사회는 그들의 행위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처벌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TV 드라마 중에 신

성한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적이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곳곳에서 성의 타락, 가정의 타락을 조장하는 것들이 일 반화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성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출교 할 것을 명하였다(고전 5:1-2).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고전 6:9-10).

3. 일부 교계에서는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

영국 감리교는 최근 ‘포용적인 언어 가이드’를 발표해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용어 사용을 피하라고 권고 했다. 그러한 용어가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 했다. 이 지침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삶에서 표현되는 방식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다’는 생각을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고 ‘남편과 아내’를 용어의 예로 제시했다. 이 지침은 적절한 대안으로 ‘부모’, ‘파트너’, ‘자녀’, ‘보호자’라는 단어를 제시 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한국에 개신교에서도

일부 목회자가 퀴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하여 교단으로부터 출교 선고를 당했다. 일부 진보라고 자처하는 목회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그들의 행위(?)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 행위를 하도록 여전히 부추기고 있다.

4. 한국 교회는 신성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질서를 보전하고 건강하고 신성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정하려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정한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되거나 수정 보완이 되도록 한국 교회가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상일상을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창 1:27-31, 2:24-25).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람의 사귐을 위하여 가지는 성(性)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한국기독교 장로회 헌법에서 인용)

5.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형제들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 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려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하리”(갈 6:1).

“범죄 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딤전 5:20).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3-14).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순교자 저스틴의 <제 1변증서>



강태광 목사
World Share USA

의 우주적 로고스를 그리스도에 연계시키는 독창적인 사상가였다. 그는 자신을 철학자라고 주장하면서 철학자들이 입는 외투(pallium)를 걸치고 순회 설교자로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 했다.

그의 이론은 후대 기독교 변증가인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 테오플루스(Theophilus), 터툴리안(Tertullian), 펠릭스(Minucius Felix)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 유스티누스는 이 단들과 논쟁도 주저하지 않았다. 유스티누스의 이단에 대한 단호한 태도는 영지주의(Gnosticism)와 군주신론(Monarchianism), 사상에 대항했던 후세의 변증가 헤게시우스(Hegesippus), 이레나이우스(Irenaeus), 히폴리투스(Hippolytus),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등으로 이어진다.

유스티누스의 고향에 관한 정보는 약간 모호하다. 먼저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인근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자료는 플라비아 네아폴리스 태생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자료는 그는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에 관하여 그리스도교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그리스도교 철학자다. 그는 그리스

료는 사마리아 지방에 세워진 플라비아 네아폴리스에서 태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지명을 통합한 것이 그의 출생지라고 본다.

그는 스토아주의(Stoicism), 소요학파(Peripateticism), 피타고라스학파(Pythagoreanism), 그리고 플라톤주의(Platonism)를 섭렵했지만, 그의 내적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철학들에 대한 공허함을 가진 유스티누스는 132년 가이사란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유스티누스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플라톤의 생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

유스티누스가 만난 노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다. 아마도 유스티누스가 당시에는 그 노인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다 후일에 자신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며 그 만남을 정리한 듯 하다. 여하간 그 노인은 철학자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성은 통해 완전한 영적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의 고대 선지자들에 대해 알려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 유스티누스는 그의 말을 듣고 기독교 진리를 수용하였고 개종했다.

전승에 의하면 유스티누스는 그리스 도교로 개종한 후에도 철학자로 자처했다. 유스티누스는 과거 자신이 플라톤 철학자임을 내세웠던 것처럼 스스로 그리스도교 철학자 혹은 그리스도교에 관한 편견에 의한 박해를 목격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독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제1 변증서>과 <제2 변증서>인데 현재는 <제1 변증서>만 남아 있다.

유스티누스는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논리에 편승해 기독교를 핵심으로 하는 것을 우겼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는 성품이 비교적 온순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이었는데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을 믿고 기독교를 박해하여 했었다. 그러나 유스티누스의 변증서를 읽고 감동되어 체포된 기독교인들을 석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스티누스는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이어 로마 황제가 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가 165년경에 박해를 시작하자 황제의 박해를 막아 보려고 변증서를 다시 작성해서 황실에 보냈다. 물론 황제에게 이런 문서를 보내는 것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결국,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황제는 유스티누스의 변증을 수용하지 않았다.

유스티누스는 견유학과 철학자 크레센스라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다 크리센스의 사주로 체포되었다고 전해진다. 간교한 크레센스는 유스티누스가 황제가 아닌 다른 주(Lord)를 섭간하고 로마의 총독(혹은 집정관) 유니우스 루스티쿠스(Junius Rusticus)에 고발했고, 총독이 유스티누스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유스티누스는 유니우스 루스티쿠스(Junius Rusticus)총독에 의해 6명의 동료 기독교인과 함께 체포되었다. 황제(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총독(유니우스 루스티쿠스)의 심문을 받으면서 유스티누스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고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황제의 신전에 희생제물을 바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많은 고문을 당한 후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 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광고심의필 :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푸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열,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유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세상 최고의 성경

신성숙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리노에 위치한 헌팅턴 도서관(Huntington Library)을 방문했다. 오래 전, 근처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을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찾았다. 그곳은 도서관뿐 아니라, 미술관과 식물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줄 서는 바람에 입장하는 데만도 한참 걸렸다.

그곳은 도서관 외에도 18세기 및 19세기 유럽 미술과 17세기에서 20세기 중반

미국 미술에 중점을 둔 광범위한 미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었다. 또한 '일본 정원', '중국 정원', 그리고 '사막 정원' 등 약 120에이커(49ha) 규모의 전문 식물 조경 정원을 자랑하고 있었다. '일본 정원'에는 다다미방 같은 집이 완전 오픈해서 공개되어 있고, 대나무와 단풍이 우거진 멋진 전경을 뽐내고 있었다.

'중국 정원'에는 오색찬란한 금붕어들이 뛰어노는 아름다운 연못과 작은 성곽 같은 건물들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모두가 사진 찍기에 적격인 장소들이었다. 세 번째 방문한 '사막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선인장들이 집결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의 최고 장소가 되었다. 태어나서 그렇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선인장은 처음 구경했다. 하나님의 솜

씨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거길 방문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뭐니 뭐니해도 헌팅턴에서 내가 가장 방문하고픈 곳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구텐베르크가 제작해서 활자로 인쇄한 최초의 성경책이 있는 장소였다. 목사와 교수의 신분에 그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것 아니겠나.

요한 구텐베르크(약 1397~1468년)가 제작한 성경은 서양에서 활자로 인쇄된 최초의 실질적인 책이다. 이것이 등장한 시기는 1455년경이다 한다.

자료를 찾아보니, 최초의 175부의 판본 중 오늘날 48부만 남아 있다고 한다. 그 중 36부는 종이에, 12부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모피지에 인쇄되었단다.

오늘 우리가 방문한 헌팅턴은 미국에 있는 세 개의 양피지 판본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엄청나게 큰 크기로 화려하게 제본이 되어 있는데, 개인용이 아닌 기관용으로 돈이 많은 수도원이나 교회의 소유였음을 시사한다. 활자로 찍어낸 최초의 성경책이라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성경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발걸음을 멎추고 들여다보고 가거나, 아니면 나처럼 사진을 찍고 지나간다. 구텐베르크와 같은 분의 재능과 수고로 인해 성경이 활자로 인쇄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헌팅턴 도서관에 기념으로 전시되어 있는 그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집이나 내 스마트폰 속에 들어 있는 성경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놓쳐선 안 된다.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질 않는다. 손에 들고 읽고 목상해서 은혜받고 변화 받을 수 있는 성경이 가까이 있음에도, 전혀 활용하지 못해서 조금 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구텐베르크에 의해 서양 최초의 활자로 인쇄한 헌팅턴 도서관에 비치된 성경책 한 권의 값은 얼마일까? 팔지도 않겠지만, 값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값지고 소중한 최고의 성경책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 집에 있는 성경책이나 스마트 폰 속에 있는 성경책이다. 가끔씩 야외에

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곤 한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수풀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낫다)

그렇다. 2024년 새해엔 우리 모두가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종이 위에 기록된 글자라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이 경험될 것이다. 어느 해보다 '성경의 해'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길 소망해본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파하라

박진호 목사
엠피스커비우즈
한인교회



형이 임박한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충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과 그 맥을 같이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서 하라고 합니다. 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도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으로 잘 암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되 가르친 것을 자기 게 하라고 하셨듯이 말입니다.

◆무조건 전도하라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복음으로 넓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서신이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목회에 관한 여러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권면 중에서도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전제(奠祭)란 동물 희생제물을 태워 바치면서 술을 뜯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벌써 전제로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신자가 처

마치 시장에서 아무나 소매를 끌고 들어가 물건을 강매하는 듯 전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손님들과 영업하는데도 가게에 쳐들어가 전도합니다. 병원에 병문안 가서도 같은 병실에 다른 환자들이 이 있든 없든 소란하게 친양 부르고 설교하는 식입니다.

◆때는 어느 때인가?

무조건 전하라는 것이 본문 2절의 뜻이 아닙니다. 전도를 반드시 시급히 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련된 말씀이지 전도하는 방식에 관한 충고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엄하게 명한 근거를 본문이 어떻 게 설명합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고 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 즉, 심판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이 반드시 전도해야 할 첫째 근거이자 이유입니다. 그 둘째 인 그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때를 얻든 못 얻든"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전도자로선 주님 재림의 때를 짐작도 못합니다. 따라서 그 때를 알든 모르든, 입버릇처럼 안 했던,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니까 열심히 전도하라는 것 이 본문 안에서의 뜻입니다.

피전도자의 상황의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면 복음 수용 여부를 문제 삼지 말고 무조건 전하라는 뜻과는 무관합니다. 일부 번역본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고 전도하는 상황에 적용했습니다만, "때를 얻는다"는 원어의 뜻은 현존하다, 곁에 있다, 임제하다, 임박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2절의 때도 3절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는 것은 3절의 때가 이른 것이고, 못 얻는 것은 아직 이르기 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같은 저자가 같은 문단 안에서 한 단어를 두고 여러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볍고, 자기 사욕에 따라 스승을 두고, 자기 원하고 좋아하는 말만 듣고, 허탕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때를 얻지 못한 것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타락하지 않은 것이고, 때를 얻은 것은 바로 그런 타락상에 이른 것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의 문자적 의미는 때를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때를 세태가 진리에 눈을 감 때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나마 진리가 먹힐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진리에 눈을 감기 시작할 때는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더더욱 전도해야 합니다. 또 진리가 조금이라도 먹힐 때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 더더욱 전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정확히 분별하여서 문제 삼지 말아야 할 것은 피전도자의 개인적 저자이 아니라 각 세대의 영적 흐름입니다. 사악하게 타락해가면 더 전해야 하므로 2절에서 오래 참으라고 권한 것입니다. 또 그때 일수록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므로 꾸중할 것은 하고 시대의 타락상은 물론 이단들의 잘못된 흐름을 잘 경계시키라고 권한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전도할 때는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살펴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뱀처럼 온유하게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예의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관습을 따라 전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사정 무시하고 전한다는 의미와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의 사상이 책마다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듯 믿음을 강요해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간단한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해도 엄병처럼 번져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무조건 전도했는데도 먹혔던 때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 교회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속히 정립하기 위해 사였습니다. 또 주님 부활의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었기에 복음이 순순히 먹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서로를 섭겼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방사회와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신자들이 이 지금껏 보지 못한 전혀 다른 모습의 성결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신자들의 삶을 본뜨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때가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가뜩이나 그 위선적인 삶으로 육을 먹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전도했다간 더욱 역효과만 날 것입니다.

현대는 친밀한 관계에 입각하여 그것도 변증적인 전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실종하여 죄라는 개념 자체도 함께 실종 내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이런 다원주의 상황에선 하나님의 실존부터 시작해 그분의 절대성에 대한 납득부터 시켜야 합니다.

물론 아주 힘듭니다. 바울이 말한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망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습성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듣고 싶은 소리를 골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있다 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대주의의 다원주의가 판을 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품으로 찾아 돌아가려는 본성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자기 실존의 뿌리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궁극적 진리는 탐구합니다. 거대 담론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외면은 해도 전혀 알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사실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시대가 허무하니까 절실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면 됩니다. 진리를 탐험 왜곡하는 뜻이 아닙니다. 전하는 내용이 지금처럼 무조건 믿으려가 아니라 뭔가 불신자가 솔깃해지는 내용으로 흥미를 돋우며 전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변증적으로,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예의 바르고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 경책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그들 수준에 맞추어 그들 언어로 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스스로 갖추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라는 말씀의 참 뜻이자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절실한 전도 방안입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세상살이 마음먹기 나름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나는 83세 나이에 이르도록 궂은 일,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아는 이들은 위로하는 어투로 내게 <그 고생을 어떻게 견뎌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자 나 자신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록 고생스럽긴 하였지만 신명나게 살아왔기에 보

람 있는 세월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신껏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 어차피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고생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배고파 고생이지만 배부른 사람들은 삶을 빼느라 고생합니다. 아래도 저래도 고생하기 마련인 세상살이에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고생이냐?> <세월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고생이냐?>가 문제일 따름입니다. <보람 있는 고생이냐?> <보람 없는 헛고생이냐?>가 문제입니다.

세상살이야말로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겸은색 안경을 쓰고 보면 겸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노랗게 보입니다. 부정적인, 비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뒤틀려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낙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겸은 구름 속에서도 한 줄기 햇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기에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꿈을 지니고 그 꿈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변화된 자기 만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화를 멈출 때 비로소 늙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변화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올해를 내 생애에서 최고의 해로 만들겠다는 <변화의 다짐>을 하며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새해가 밝았다. 다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던 시간은 다가와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다. 철학적인 말로 실존을 살아가는 것이다. 새날은 새로운 실존이다.

이제부터 이 새로운 실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선택에 달려있다. 나의 선택에 나를 만든다. 나의 실존을 어떻게 시작할 건가, 이것이 문제다.

우리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다. 모든 분야에 K-컬처가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조그마한 한반도의 역량이 글로벌하게 펴져 나

가고 있다. 드라마, K-POP, 영화, OOT 시리즈, 푸드, 패션, 방송, 의료, 스포츠 스타, K-케이머 등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심지어 외국인 교회에서 한국인 목회자를 담임목사로 모셔가는 K-컬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 반면 동안 형성된 우리 민족의 탁월한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음을.

이 중에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세계적 평가는 상상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 해 전 우즈베키스탄을 기본 적이 있다. 한국 대사관과 한국 문화원을 방문했다. 그때 보았던 한글과 K-컬처에 대한 열광하는 광경을 목격한 바 있다.

새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하겠다. 이를 위해 <어게인> 하자. <어게인>의 사전적 정의는, (같은 일을) 다시 한 번(once more), (어떤 일에 더하여) 계다가, 전과

마찬가지, 되돌아와(back) 이런 뜻이다. 그래서 새해의 희망은 <어게인>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해보자. K-컬처로 세계로의 진출을 극대화해보자. <전과 마찬가지>로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고 달려가 보자. 이를 위해 다시 <되돌아와> 자기 점검을 철저히 해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류는 시들 수도 있을 것이다.

TV 채널 방송 <싱어게인3>를 보면서 이렇게 뛰어난 싱어들이 발굴되는 과정을 보며 감탄하고 있다. 특히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관문을 통과하는 장면에서 다행스러움을 느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서있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잘 살려내야 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최상의 것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마치 새로운 자기만의 장르를 가지고 나가는 상아처럼 말이다.

신학적 용어로 어게인은 <회개>를 의미한다. 다시 <어게인>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와 <네 아무가 어디에 있느냐?>에 답하는 것이 어게인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뜻이다. 영성과 사회성을 돌아봐야 한다.

인간은 어게인 해야 한다. 날마다 어게인 해야 한다. 어떻게 어게인 하는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사랑이 사라진 곳에 미움과 원망, 분열, 분쟁, 전쟁이 온다.

새해에는 어게인 하자. 사랑으로 어게인 하자. 사랑은 열망이다. 사랑은 희망이다. 사랑은 활활한 비전이다. 그때를 기억하고 어게인 해보자.

새마을 운동 정신을 어게인 하자. 88올림픽 열정과 2002월드컵 붉은 물결운동을 어게인 하자. IMF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 캠페인 정신을 어게인 하자. 최근 리바이벌하고 있는 이순신 정신을 어게인 하자. K-컬처로 어게인 하자. 새해를 어게인의 해로 만들어 보자.

社說

이민청, 저출산·노동력 부족 대안인가

국민주권행동이 법무부가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의 해법으로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주권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립의원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매우 위험한 반헌법적 구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의 공식 명칭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다. 지난달 28일 확정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됐는데 향후 5년 동안(2023~2027년) 이민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부 종합 계획이다.

정부가 이민청 신설 문제를 처음 꺼낸 건 1년 전인 지난해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기장)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신설하려는 건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 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돼온 게 원인이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법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을 막겠다는 뜻이다.

취지는 외국인 정책의 중복·비효율을 막겠다는 건데 실은 출산율 저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가다가 산업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 가동을 멈춰야 하는 공장이 속출하게 될 거란 거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30일 자료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지난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05명 줄었다. 이미 시작된 인구절벽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타개할 방법이 없는데 고민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노동자를 포함해 2022년 12월 기준 종인구의 5%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증가하는 한국 체류 외국인 수로 볼 때 우리나라도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로서도 해외 이민자들에 대한 좀 더 뚜렷하고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걸러내고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추진하는 배경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음을 물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앞을 내다보는 정책에

국민 정서가 미쳐 못 따라가는 데 있다. 국민은 외국인이 이민 개방으로 물밀 듯 들어오면 갖가지 사회 부작용이 일어날 걸 염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 의식 속에 단일 민족이란 개념이 강하게 들어앉아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심리도 있다.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이민 청 추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가 있다.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어찌 국민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에 의문부호가 붙어있다.

대한민국이 초저출산율로 인구절벽의 위기 를 맞게 된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데 예대 정부는 매번 균형적인 처방보다는 그때그때 패밀리식으로 일관해 방만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런 현실에서 정부가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 이민청을 들고 나오는 자체가 성급한 폐해주의라는 지적이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판적이다. 산업 현장에 빈 일자리가 생기는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 환경 때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빈 자리를 쉽게 외국인으로 채우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민청 추진에 대해선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이민청 설치에 찬성했으나 이민정책 활성화에는 '동의한다' 50%, '동의하지 않는다'가 46%로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민정책 활성화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어여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인구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노인층 비중이 더 커지는 현실에서 문제의 해법을 해외 이민 개방 정책에 두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민자로 이루어진 미국은 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민 성공의 모델로 삼아 따라 하기엔 역사성과 국민적 토양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는 국민의 숫자만 채워 넣는다고 그들이 저절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은 숙고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민 정책을 한 뮤직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별개로 추진력을 확보하는 접근방식이 좀 더 현명해 보인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마켓 플레이스

홈페이지 www.cplace.co.kr 전화번호 02-6052-6791 이메일 riseup0731@gmail.com

부동산

서울 강서구 단독교회매매

- 소재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연면적: 279.8(평)
 - 건축규모: 지하 2층~지상4층
 - 매매가: 27억
- 연락처 ☎ 010-4621-6428

경북 포항 교회 매매

- 소재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 대지면적(건축면적): 총 212.35평
 - 매매가: 3억 3천
- 연락처 ☎ 010-6780-046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매매

-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 면적: 대지면적 460평
 - 주차대수: 약 50대
 - 매매가: 15억원 (용자 8억)
- 연락처 ☎ 010-3672-0680

부천교회매매

-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근
 - 면적: 대 423m² / 건 364m²
 - 매매가: 22억
- 연락처 ☎ 010-9924-7571

신문 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천영실(520607-2*****) 2019.5.30. 사망
최후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① 사건번호: 2023-단319 상속한정승인 (부산가정법원)
② 사건번호: 2023-단319 상속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③ 청구인: 천영철
④ 공고기간: 2024. 1. 5. ~ 2024. 3. 5.
⑤ 신고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2024. 1. 5.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연남(281105-2*****) 2019. 1. 8. 사망
최후주소: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51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① 사건번호: 2023-단10186 상속한정승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② 청구인: 1.이강희 2.이강근
③ 공고기간: 2024. 1. 5. ~ 2024. 3. 5.
④ 신고처: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5, 7층 (신정동, 동진빌딩)
법무법인 강향 변호사 최희진

2024. 1. 5.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영(570918-2*****) 2020.10.11. 사망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7 (암사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① 사건번호: 2023-단8518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② 청구인: 수원가정법원 177-단177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③ 청구인: 1.이경희 2.이경근
④ 공고기간: 2024. 1. 5. ~ 2024. 3. 5.
⑤ 신고처: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61, 111동 501호
(매화동, 하이드파크)

2024. 1. 5.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경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① 사건번호: 2023-단8518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23-단8518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② 청구인: 1.김경우 2.김경정
③ 청구인: 1.김경우 2.김경정
④ 공고기간: 2024. 1. 5. ~ 2024. 3. 5.
⑤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0층(서초동, 법조타워)

2024. 1. 5.

동해한옥

매매가
38억

주인문의 010-4071-1011

연수원, 힐링센터, 기도원,
요양원, 한옥스테이카페 추천

- 면적: 1,724m² (총6채)
- 위치: 강원도 특별자치 동해시청 앞



대부도엘림수양관

성회
안내

같이모여 찬양하고 같이모여 부르짖고 같이모여
성령충만 받는 수문앞 광장 성회에
여러분을 초청 합니다.



매월 (1주 3주) 한 주간성회

월~목요일 저녁까지
예배시간 안내
새벽7:00 오전10:00
오후2:00 4:00 저녁7:00
숙식무료, 200명수용가능

매주 목요성회
오전10:00 오후2:00
4:00 저녁7:00
강사님을 초청합니다.

성회 강사님을 초청합니다.
(사회 기도 특송 축도) 모시고 올 수 있는 분

상담전화 | 031-886-8277

장소_ 대부도 엘림수양관

안산시 단원구 새방죽길 42-21

원장_김우경목사 / 010-8898-9141
대중교통이용, 전철 오이도역 앞에서 123번 또는 790번
버스 타고 대부도 중학교앞 하차 하면 보입니다.
전화요망 도보는 10분거리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1: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목사·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및 통신신학모집



이사장 양성 목사

본원은 57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 협의회에 소속된 교단의 인증된 신학연구원입니다.

본원은 정통기반주의에 입각하여 개혁주의 정통보수신학적 신학연구원입니다. 본원에서는 신학대학원생과 연구원 출신생은 본교에서 고사를 거쳐 총회 산하 각노회에서 목사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부 과정

학부	학과	학제	지 원 자 격
신학부	신학과	4년	본교에서 인정하는 학력자
신학부	목회학과	4년	본교 규정에 의한 학력소지자 · 기타 학과는 본교 규정에 의한 학력소지자
신학부	여목회학과	4년	정로 및 연장자는 면접규정에 의하여 특별우대 · 여목회학과는 목회자 사모 및 기도원 원장 특별우대

연구원 과정

학부	학과	학제	지 원 자 격
연구부	신학연구과 (Th.M.)	3년	· 정규 신학대학원생 및 출업예정자와 등등학력 소지자 · 본교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학부졸업자 및 출업예정자
연구부	목회연구과 (M.Div.)	3년	· 편입생은 본교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이수자

*통신신학은 학부 8학기, 연구원 6학기입니다.

(직장관계나 지방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위하여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 타신학교 출신도 면접을 통하여 안수받을 수 있음. (여록제도 있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통총회신학·신학연구원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8길 31 구로우성아파트상가 2층 (호선인천행 구일역앞)

대표전화 (02) 869-0166, 010-9825-2488



신·편입생 모집

<수시 모집>

-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 여록 제도 있음. (수시접수)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반) 8학기	· 세례를 받은자 · 남녀 상상없이 사랑이 투철한 자
신대원	(주/야/토요반) 4학기	· 본교가 인정하는 학부졸업자 증퇴한 자는 편입 가능.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교 3학년에 편입.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수도 국제대학원대학교 외 협력교육기관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록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수도 국제대학원대학교 외 협력교육기관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증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 졸업증명서 (출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행정부록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 5층 (INCS 평생교육원)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 흥 회 특 징]

불 같은 찬양

생수 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 해결

장사 장대수 목사

시흥 사랑의 교회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 디 어 선교 를 선 도 하는 방 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모세오경에서 창세기부터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창세기를 캐스팅하다’

지난해 10월에 김준수 목사(밝은세상교회)는 『창세기를 캐스팅하다』(밀라드)를 출간했다. 김준수 목사는 6년 전 『모세오경·구약신학의 저수지』(킹덤북스)을 출간했다. 김준수 목사는 오경에서 “창세기” 편을 개정 증보하여 출판했다.

김준수 목사는 『모세오경』이 “워낙 무겁고 분량이 많아 일기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심한 끝에 책을 7권으로 분권하기로 결심하고, 맨 첫 번째 책으로 선보이게 된 게 『창세기를 캐스팅하다』”라고 소개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모세오경 시리즈(1)”이다. 이전에 출간된 도서



에서 “잘못된 곳은 고치고, 긴 문장은 되도록 짧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학설을 덧붙였다”고 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모세오경 시리즈(1)”인 창세기 이야기는 김준수 목사의 인문학적 접근이 잘 드러난다. 김준수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인문학적 도서로 베스트셀러 작품을 출간 시킨 탁월한 인문학자였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관련되어서도 언어, 말 등에 관한 연구 도서도 출판했다.

『창세기를 캐스팅하다』는 창세기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저술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창세기 연구에 관한 기본 정보와 함께 저자가 관통한 창세기 흐름을 볼 수 있다. 탁월한 인문분야 저술가가 모세오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인문학적 글쓰기로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김준수 목사는 “그대 서가에 꽂아 놓고 가끔씩 끼내어 읽으세요”라는 특이한 소개글을 주었다. 창세기가 생각날 때 서가에 꽂아 놓고 한 부분씩

읽어간다면 저자가 원하는 창세기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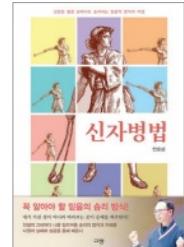
『모세오경: 구약신학의 저수지』는 김준수 목사가 5년 동안 집필한 대작으로, 쪽수가 1,120면이고 깨알 같은 각주가 무려 1,923개나 된다. 김준수 목사는 이 책을 기반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다섯 권의 책과 오경입문, 구약신학으로 모두 7권으로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을 캐스팅하다’라는 제목을 붙여 3~4개월마다 7권을 시리즈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출간 진행 성을 밝혔다.

김 목사의 주요 저서로는 『모세오경·구약신학의 저수지』(킹덤북스, 2017), 『바른말의 품격』(상하권, 2018), 『말의 축복』(CLC, 2019), 『에덴의 연애』(2021, 북센), 『그레고 감사합니다』(2020, 북센)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는 『그날, 12월 31일』(밀라드)이 있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광주 주님의교회

신앙은 물론 삶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법칙과 비결

신간 ‘신자병법’



성공과 승리와 행복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며,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양과 지식의 이름으로 세상의 성공학과 자기계발의 독서, 강의를 많이 찾는다. 그러나 그 길에 공통분모도 있기는 하나,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에 성도의 승리는 세상의 인본주의적 성공과 다를 수밖에 없다.

저자 안호성 목사(물맷돌교회 담임)는 이 책에서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고난의 광야와 평안한 배향길 궁 그 어디서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며 삶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골리앗 같은 절망스러운 난관, 사울과 같은 관계의 어려움, 밋세바와 같은 유혹을 만날 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저자는 책 속에서 “다윗처럼, 깨뜨리지 못했던 나의 한계를 깨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무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다. 평범함은 늘 하던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것이고, 위대함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다.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는 법은 없다”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종돌하는 것이 있을 때, 치열하게 이루려고 애써온 것이 성취되려는 문턱에서 조차 주님의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아야 제자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다”고 했다.

이어 “한계를 뛰어넘자고 하면 다들 좋다고 하면서도 한계에 부딪쳤다고 절망한다. 우리는 한계를 돌파하여 한계 너머의 축복과 삶을 누리길 꿈꾸면서도 한계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싶어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잘될 거야,’ 언젠가는 다 회복할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믿음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 이런 실패가 자꾸 반복되는지, 왜 이런 안타까운 석패가 내 삶 속에 이어지는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

의 본질을 간파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복할 뿐더러, 다시는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방이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으로 굽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정당화하고 싶겠지만, 이유가 어떻든 내면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 결과는 다 내 손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아닐 때 아니라고 매섭게 꾸짖어주는 책망의 말씀과 양심을 찌르는 아픈 말씀이 있는가? 인생의 흥망은 나의 잘남, 범죄와 실패의 유무보다도 ‘말씀’의 유무에 달려 있다. 말씀이 있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 승리할 수도 있고, 말씀이 없어 그대로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며 “죄는 나쁜 짓, 험한 짓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께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요 죄다. 그 우상은 뭔가 깨닫지하고 부딪치고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관계, 좋은 감정, 자녀, 든든한 스펙, 행복해 보이는 것 등 좋은 것들일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께 계실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 우상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남은 평생 설탕물이나 팔 거요?” 잡스가 펙시코 CEO를 흔들었다

누군가의 경험에 프레임을 부여하는 것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좋은 방법이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공동 창립한 뒤 몇 해 지나지 않아 존 스컬리를 새로운 CEO로 앉히고 싶어졌다. 스컬리는 당시 시가총액 20억 달러에 이르는 펙시코의 CEO였다.

잡스는 스컬리에게 “남은 평생 설탕물이나 팔 거요?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꿔 볼 거요?”라고 물었다. 설탕물이나 팔고 있다는 말은 스컬리가 펙시코에서 하는 자기 일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단 잡스가 프레임을 만들자, 프레임이 스컬리의 뇌리에 들려붙었다. 스컬리는 결국 애플에 합류했고, 이후 새로운 역사가 되었다.

책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비즈니스북스)은 설득, 부탁,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영향력의 규칙을 알려준다.

저자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에 대해 다루며, 작은 행동으로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한다. 구글 직원들의 프레임을 바

꿈으로써 식사 때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하는 게 도움을 준 사례도 소개한다.

저자는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가진 생각도 바꿔 준다. 협상은 승패가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양측이 가치를 더할 기회라고 보고 가치를 더 크게 만드는 마법의 질문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외에도 여성으로서 협상하는 법, 부드러운 요청으로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법, 소극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도 다룬다.

사기꾼 등 자신에게 나쁜 의도로 영향력을 미치려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아홉 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정리해준다.

이수지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1월, 작가들의 말말말



일반적으로 종교학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세계 3대 종교라 칭하며 같은 신을 섬기는 형제종교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즉 무슬림과 유대교인이 우리의 형제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대교인들은 기독교를 구약으로 이해 형제 종교로 생각하지만, 무슬림은 피의 역사와 현재도 발생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 상황이 형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바라보는 무슬림들의 입장과 시각은 어떨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을 오직 이슬람 안에서 한 형제임을 말하지만, 이 또한 같은 이슬람 안에서도 나라, 종족, 분파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황태연 ‘잃어버린 형제 이스마엘’

하나님은 말씀한다. 이미 언제나 말씀한다. 항상 새로이 말씀한다. 대지는 황폐하고 공허하였다. 그리고 어둠이 깊은 곳 위에 깔려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떠다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되었다.” 성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복할 뿐더러, 다시는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방이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으로 굽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정당화하고 싶겠지만, 이유가 어떻든 내면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 결과는 다 내 손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아닐 때 아니라고 매섭게 꾸짖어주는 책망의 말씀과 양심을 찌르는 아픈 말씀이 있는가? 인생의 흥망은 나의 잘남, 범죄와 실패의 유무보다도 ‘말씀’의 유무에 달려 있다. 말씀이 있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 승리할 수도 있고, 말씀이 없어 그대로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며 “죄는 나쁜 짓, 험한 짓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께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요 죄다. 그 우상은 뭔가 깨닫지하고 부딪치고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관계, 좋은 감정, 자녀, 든든한 스펙, 행복해 보이는 것 등 좋은 것들일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께 계실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 우상이다”고 했다.

워르겐 베르트 ‘예수님,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한다. 기독교는 누가 도를 닦아서 진리를 깨닫고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말씀해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을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 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2월이 보니, 나타내신 바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1월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고, 눈으로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문일규 ‘참된 진리를 찾는 당신에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따뜻한 신앙인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정직 있는 말과 쉬운 문제로 전하는 반전의 예언자적 메시지’

이 시장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그리스도의 오심(2)

창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라”입니다. 영어 성경에 “be fruitful,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되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 주신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잘 자라서 참된 열매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무슨 열매인가?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첫 사람 아담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짜기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범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타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육해야 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짓되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열매는 열매인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두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같은 감람나무이지만 하나는 돌감람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하나는 참 감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우리이고 참 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에 감나무도 참 감나무 있지만 돌감나무, 고욤나무라는 것이 있

습니다. 고욤나무는 감나무는 맞는데 도무지 먹을 수 있는 감이 아닙니다. 모양은 감인데, 먹을 수 없어요. 열매 작고 씨가 가득해서 그냥 먹을만한 열매가 아닙니다. 너무 끓습니다. 둘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생육한 인간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참 감나무가 되었어야 했는데 나쁜 열매 맺는 고욤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열매 맺는 새로운 종자가 필요합니다. 종자 개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뜻된 열매를 맺는 나쁜 종자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열매 맺는 새로운 종자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한 그루의 나무가 나온 것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그루,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참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종자 개량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요, 그 나무에 달린 기지였습니다. 옛 시대 아담으로 말미암은 나였습니다. 타락한 아담으로 말미암은 나, 그래서 도무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14, 14, 14대, 이스라엘 역사의 오랜 고난의 세월 가운데 비로소 42 대 만에, 한때 두 때 반 때 만에 종자개량에 성공



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전혀 다른 새로운 종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종자가 바로 그리스도 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새로운 종자로 오신 것입니다. 죽은 나무뿐인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생명나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기에 접붙여져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종자가 되려면 접붙여져야 합니다. 둘감나무에서 잘려져서 참 감나무에 접붙여져야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옛 시대 아담으로 말미암은 나는 죽고 새 시대 예수로 말미암은 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나무에 접붙여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영을 받아 참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종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종말을 맞이하고 전혀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도무지 맺을 수 없었던 참된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이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의 역사 한복판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신으로 멸망 받아 죽고 지옥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왕 노릇 하는 옛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고 생명이 왕 노릇 하는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미지 죽은 나무뿐인 정원에 생명나무가 자리에서 번성해 되고, 더러운 물이 가득한 죽은 호수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변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일단 생수가 터져 나오면 죽은 호수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이 판치고 극악해지고 어리자리 도는 것 같다고 밑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증거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14, 14, 14 이스라엘의 혼란한 역사의 굴곡을 지나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셨은 즉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무리 어리자리 도는 것 같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애이 판치고 극악해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세력을 모두 이기시고 역사의 방향을 사랑에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종착역을 향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곧 오리라. 상황도 해할도 없는 그 세계가 곧 오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이 악한 세계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날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이가 아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한 날, 이 역사의 미래를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은혜 중만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서광교회 제공

바이블칼럼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IV

그런데 그 여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정찬과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소다(눅 7:47)”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눅 7:48)” 주님께서는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여자의 사랑이 많음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눅 7:47)”

사랑을 알아주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데 주님께서는 죄인인 그 여자의 사랑을 알아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리라(눅 7:50)”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죄인인 그 여자에게 임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입힐 수 없었다. 너무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직 멸시와 천대와 증오를 받던 개 같은 죄인에게만 임할 수 있었

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역사적이다. 죄인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에게 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누가복음 18장에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윤리적으로는 흡잡을 것이 없는 바리새인 한 사람과 사람들의 멀시와 천대를 받던 세리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를 멋지고 깊게 드렸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뿐이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곳은 의인인 바리새인이 감사 기도를 멋지고 깊게 한 곳이 아니고 죄인인 세리가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짧게 드린 곳이었다. 결국 세리는 죄 사함과 의



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 사람이의 둘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눅 18:14)”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참으로 모순되는 듯한 일이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종교적인 생활을 나름대로 충실히 했던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뿐이었는데 말이다.

YEKF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40:1 NIV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he turned to me and heard my cry.

- wait for : ~를 기다리다
- patiently : 참을성 있게
- the Lord : 주님
- turn to : (고개나 몸을 돌려서) 돌아보다
- cry : 울부짖는 소리

(사편 40편 1절) 나는 참을성 있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식물로 뜯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낙타와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청색인 청천마가 있다.

■ 천마의 효능과 신비
천마의 마약학에서는 미루는(麻木)이라 하여 미비가 되는 증상을 다룬다. 하여 하늘 천(天) 마우의 마(麻)를 더하여 천마(天麻)라 불러 왔으며 예부터 정평초(正風草)와 불리자기로 한다. 정평초란 이를 그대로 바르게 풀을 다스리는 풀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난조증이나 어려 해 풀을 피울 때면 그 천마의 이미 속이 비어 기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마치 봉대같이 쌍으로 펴고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울 때면 그 천마의 이미 속이 비어 기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꽃을 물리고 7월이면 그 씩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2월 정도만 꽃을 볼 수 있어 채취 기간이 짧아 씩이 물을 물리고는 시기가 최적의 재취기간이다.

이때 재취하는 이로운 늦가을에 천마를 채취하는 것은 통상적인 간접의 즐무늬는 씩이 없어 발견하지 어려우므로 전문 약초꾼들은 그 장소를 눈 끌고 두드렸다가 메밀 씨를 뿌려 놓았다가 지난해 메밀을 보고 재취한다.

천마의 씩이는 일년 동안이나 약하고 부드러워 올라와 적고 흰 꽃을 피우는데 그 속은 꽃풀빛의 색과 분홍색의 흥천이 있다.

뿌리가 성장하는 시기에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가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낸다.

뿌리가 천마로 명명하는 줄기는 적천(赤天) 또는 정평초(正風草)라 부른다.

천마는 홍천마 뿐이며 버섯처럼 굽고 굽어 차운 반기생식물이다.

‘천’은 노루처럼 질병을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천마로써 천마를 치료하는 천마의 천(天)이라는 뜻이다.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79)

로마서 7장 4절

4. So, my brothers, you also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to God.

·So : 그러므로

; my brothers : 내 형제들아
, you also died to the law :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through the body of Christ :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 이는 다른 이
;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to God. :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단어, 속어

belong to ~에 속하다. raise 살아나다.
bear 곱열매를 맺다.ай이를 낳다.참다.
bear fruit 열매를 맺다. that 주어 may~ : 주어가 ~하도록, ~하기 위하여
in order that(=so that)~might : ~하기 위하여, ~하도록.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 너희가 다른 이(예수)에게 속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따라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은 우리다. 율법은 살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되자 율법이 우리를 죽이고만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우리는 죽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죽였는가? 우리를 죽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는”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 있는 죽은 몸”이다.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가 공존하고 있는 삶이다. 우리의 어떤 부분은 죽었고, 어떤 부분은 살아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율법은 지난날 우리의 몸을 장악

하고 있었다. 과거 구원받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에게 군림하여 우리의 육신을 주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 하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그냥 살려 둔 채

aroused by the law were at work in our bodies, so that we bore fruit for death.

·For when we wer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 the sinful passions : 죄의 정욕이 aroused by the law : 율법으로 말미암는

were at work : 역사하여 in our bodies : 우리 자체 중에 ; so that we bore fruit :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셨더니

·for death. : 사망을 위하여

에베소서 2:15-16

15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5 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law with it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out of the two, thus making peace, 16 and in this one body to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through the cross, by which he put to death their hostility.

골로새서 1:21-22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21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and were enemies in your minds because of your evil behavior. 22 But now he has reconciled you by Christ's physical body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in his sight,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

▶해석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5절

5. For when we wer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the sinful passions

성경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요 3:6)”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전 6:17)”고 말씀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그냥 살려 둔 채로 우리의 혼을 몸으로부터 도려내고 우리와 혼이 하셨다면 그분께서는 간음 하신 꼴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몸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혼관계에 있었던 우리의 몸과 혼은

“사람”이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갈라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놓은 것을 사람은 갈라놓지 못한다마

196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 아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짹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의 혼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분과 혼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취해 놓으셨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절과 3절에서 언급되었던 “남편”이란 우리의 몸을 일컫는 것이었고, “여인”은 우리의 혼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 남편이었던 육신이 죽고 아내였던 우리의 혼이 주님과 “재혼”한 것이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을 몸으로부터 도려내시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버렸으며 이로써 우리의 육신은 이제 죽었다. 죽은 육신은 우리의 과거 남편이었고 우리의 혼은 과거의 남편의 아내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과 혼이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다마

196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짹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의 혼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분과 혼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취해 놓으셨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절과 3절에서 언급되었던 “남편”이란 우리의 몸을 일컫는 것이었고, “여인”은 우리의 혼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

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 남편이었던 육신이 죽고 아내였던 우리의 혼이 주님과 “재혼”한 것이었다. 아멘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의 혼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분과 혼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취해 놓으셨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절과 3절에서 언급되었던 “남편”이란 우리의 몸을 일컫는 것이었고, “여인”은 우리의 혼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

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 남편이었던 육신이 죽고 아내였던 우리의 혼이 주님과 “재혼”한 것이었다. 아멘

갈라디아서 5:22-24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회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급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24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해석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육신은 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해 버림으로써 남편은 죽은 셈이 되었고, 아내인 혼만 살아남게 되었으며, 그 혼은 이제 독신으로 자유롭게 되어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 곧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한 영이 되었다.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오늘의 예화

남의 필요를 채우면
나의 필요도 채워진다

쥘라 월쉬는 YWAM이 1976년 문트리를 올림픽 종에 계획하고 있는 전도 활동에 참여하기 원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월라는 재정을 놓고 기도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돈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런던에서 뉴욕까지의 항공비로 충분히 했고, 문트리를 행 버스를 탈 돈도 되었다. 그러나 뉴욕으로 돌아오려면 여전히 70달러가 부족했다. 일단 월라는 문트리를 가서 1,600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두 주간 전도 활동을 했다.

나는 편도 티켓만 가지고 믿음으로 문트리올에 온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월라는 자신의 눈에 띈 금발 머리의 처녀에게 7달러를 주었고, 그녀는 ‘꼭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에요’ 하며 밝게 웃었다.

다음날 아침, 모두들 떠나기 위해 집을 꾸렸다. 그때 누군가 월리를 불렀다.

‘월라 월쉬 씨 맞지요? 여기 계시는 동안의 수업료를 더 많이 내셨더군요’

월라는 집행부 직원이 손에 건네 준 봉투를 열어 보았다. 정확히 10달러 지폐 일곱 장이었다.

‘하나님, 그럴 순 없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 로렌 커닝햄



온혜 한 장

Happy
NEW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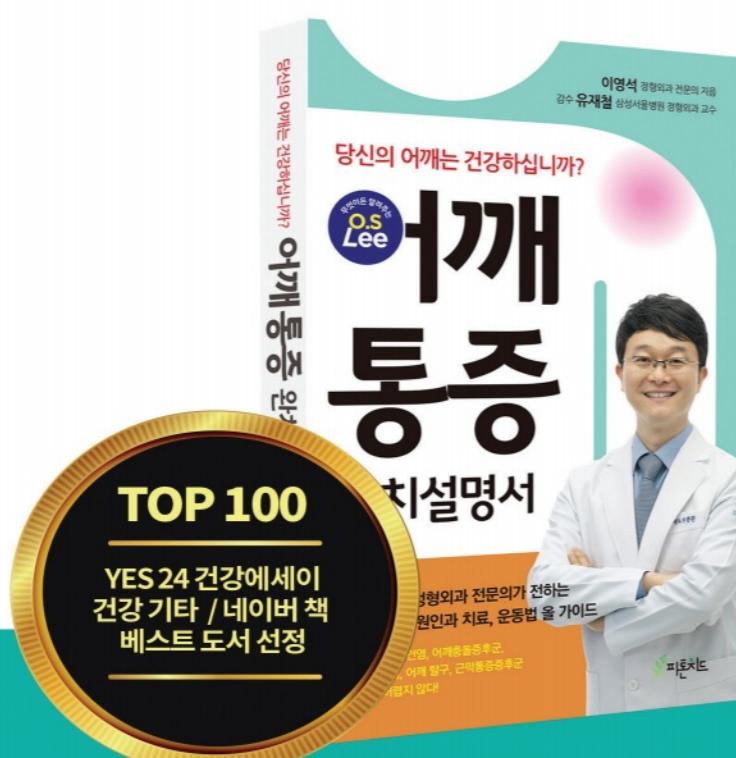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24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 가정 Rule은 같아야 합니다

얼마 전 살고 있는 집의 association에 서 봉투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몇 달 전에 regulation을 바꾸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당신을 포함한 1000여 명의 yes가 필요하던 그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으니 속히 투표지에 기표를 해서 보내라는 일종의 독촉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용된 문구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이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no라는 의미이니 그러지 말고 yes로 찌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민주사회에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싶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협박적입니다. 이 편지를 무시하지 말라. 당신이 응답을 안 하면 사람을 보내야 하니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1000여 개의 yes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

지였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Yes or No를 선택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Yes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낸 투표용지도 못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투표를 안 하면 그냥 no라고 알면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면 정중하게 물을 것이지 왜 답을 강요하는지 정말 불쾌한 생각이 들어 훈내 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평상의 rule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보이든, 보이지 않은 어떠한 rule이 작동을 합니다. 법으로 정한 rule이든, 통념상의 사회관습이든, 그 사회를 끌고 가는 규범(rule)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갈등의 요인이 줄어들고,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 이런 것들은 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운동이 운동 될 수 있고, 갈등도 없이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에

다른 운동의 규칙을 적용하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툼과 분쟁의 여지만 남을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

야 할 공통적인 규범(rule)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규범은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말하고, 주장하고, 행하는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와 세상이 좋아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에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서 교회의 어른들이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 목표를 위하여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른 규칙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다툼의 근원이 됩니다. 그 rule이 다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참 복잡해 졌습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성지순례

2천년 된 종려나무 씨앗이 짹트다(2)

사면 수직 절벽으로 이루어진 막사를 고대의 전쟁 방식으로는 함락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로마 군대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 로마의 공격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안 저항 세력은, 노예가 되느니 자유자일 때에 모두 자결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로마가 막사를 함락하기 전날 밤 막사다에 피신한 960명은 모두 자결하였다. 그렇게 막사를 함락한 로마 군대는 소수의 병사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다. 이후 5세기 비잔틴 시대에 소수의 수도사들이 막사다에 거주하였고, 그들에 의해 정상에 세워진 교회 유적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떠난 후 막사는 천 년 넘게 역사에서 잊혔다.

이 고대의 막사다가 일부 성경의 탐험가들에게 소개된 것은 1838년 이후이다. 그리고 막사다 발굴은 1963-1965년 이가엘 야딘(Yigael Yadin)에 의해 시작되었고, 1989년 이후에는 히브리대학 고고학과 애후 네제르(Ehud Netzer) 교수에 의해 발굴되었다. 1970년 애후 네제르 교수는 막사다(Masada)를 발굴하면서 오래된 종려나무 씨앗 몇 개를 발견하였다. 방사능 탄소 동위원소



이스라엘 크투라 키부츠 내에서 자라는 민족학 박물관의 모습. ©두루 Tentmaker 고문 이주섭 목사



이스라엘 키부츠 크투라의 전경. ©두루 Tentmaker 고문 이주섭 목사

(Radioactive Isotope Carbon 14)에 따라 발견된 씨앗은 약 2천년 전의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고대의 씨앗은 로마와의 전쟁 중에 막사다에 피신한 열심 당원들이 소비한 씨앗으로 추정한다. 네제르 교수는 자신이 발견한 종려나무 씨앗을 식물 고고학자인 모르데하이 키슬리프 (Mordechai Kislev)에게 건네주었다. 솔로위 박사는 이 고대의 종려나무 씨앗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해초로 만든 특별 영양제를 주는 특수처리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의 식목일인 뚜비슈밧(TU B'shvat)인 2005년 1월 25일에 심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위 박사는 이 고대의 씨앗에 생명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키부츠 크투라의 모습).

그러나 6주 후 종려나무의 단단한 껍질에 금이 갔고, 2주가 더 지난 후에 첫 번째 잎이 깨진 씨앗 틈새로 돋아났다. 이것은 기적이다. 과거에도 고대의 씨앗이 발아한 몇 차례 사례가 있었다. 2

차 세계 대전 독일의 공습으로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이 불에 휩싸였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많은 물이 자연사 박물관에 뿌려졌다. 그 물에 의해 박물관에 전시된 5백 년 전의 고대 씨앗이 죽을 위험 적이 있으며, 중국 식물학자들이 약 1300년 전의 연꽃 씨앗을 발아시키는 데 성공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마사다에서 발견된 종려나무 씨앗은 2천 년 전의 것으로, 오랜 수면 상태에서 고대의 씨앗이 생명을 드러낸 사건은 놀랍다.

솔로위 박사는 이 종려나무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따라 민족학 박물관의 이름인 모세(모세라)로 불렀다. 민족학 박물관은 1970년 발견되어 35년 만인 2005년에 그 생명을 드러내었다. 민족학 박물관은 현재 네제르에 위치한 키부츠 크투라(Kibbutz Ketura)에서 다른 식물과 격리된 채 자라고 있다. 필자는 2008년 8월 키부츠 크투라를 방문하여 3일을 이 키부츠에 머물면서 고대의 종려나무인 민족학 박물관의 발아와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당시 민족학 박물관은 1.5미터까지 자랐고, 약 10개의 잎을 냈다.

이주섭 목사(두루 Tentmaker 고문)

고대에 그리스 시대에 아주 부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왕이 후계자를 정할 때가 되었는데 왕은 자신의 많은 아내들 중에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그 자녀를 후계자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찾으려는 방법이었는데, 며칠을 고민한 끝에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진귀한 보물을 한데 모아놓고 모든 아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겠다. 왕권만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가져가도 좋다.”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아내들은 서로 진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서로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혼자 가만히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인가? 갖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니?”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중에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왕입니다. 저는 왕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큰 복보다 주님을 더욱 바라며

자비로운 왕은 모든 보물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김강환 큐티365

한국도로공사 안전문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위해



이선목 목사
예배란 이제 특별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신자들이 두 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장소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목적은 진리의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현대 교회에서 행하는 개신교식 예전 예배는 카톨릭의 미사에서 유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예배를 행하는 장소인 성전이 곧 내 몸이며,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곧 성도 자신이며, 예배에 사용되는 제물이 곧 믿는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예배는 어찌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한 몸이 되어진 교회를 다시 건물 교회로 분리하여 떠어 놓았으며, 삶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할 예배를 예배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또한 현시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보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

다. 보는 예배는 TV, 인터넷을 통해, 예배 생중계를 통해 점점 확산되고 신자들은 모이기보다는 편리한 현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더 큰 감동과 더 짙은 설교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화면을 통해 언제나 헤아리나오는 더 나은 예배 현장에 접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요는 하나님과 신자의 인격적 예배 현장보다는 좋은 시설을 마련하여 유명 교회의 예배 사전들과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중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지도자들의 공급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배란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근본정신에서 이탈하여 우리의 만족, 즉 신자들에게 나타날 예배 후의 감동과 은혜에 치중한 결과인 것이다. 교인들이 느낌과 경험에 치중하는 한, 예배는 하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더 빨리 변해 갈 것이다. 집단적 예배 현장은 현대적 이기들과 인위적인 순서들로 더 많이 채워질 것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더 진한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회를 무대화하고 예배를 각본해 가는 예술가로 변할 것이다.

비단 예배의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한 열정과 헌신을 펼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근본을 잊어버린 열심은 또 하나님의 바벨탑이 아닐 수 없다.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사람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흡족해하는 자기만족의 리더자들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바란다.

간혹 교회의 리더자들 가운데 부흥성회나 특별한 집회를 열고 유명강사를 섭외하고 예배가 특별집회 형식으로 진행될 때, 집회가 끝나고 리더자들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 집회가 어떠했는지,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이는 어찌 보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모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았는지, 열심히 모여 기도한 후 그 생각들을 모으고 나눌 수는 없는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별한 것을 세상의 값없는 공연처럼 모인 사람들의 즐거움과 감동만을 확인하는 예배가 아니길 소망한다.

◆ 이선목 목사

4대째 내려오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으며 창조적인 목회를 꿈꾸며 문학을 이야기하고 삶을 노래하는 따뜻한 목회를 꿈꾸고 있다. 국제 오엠선교회의 선교사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둘로스 선교선과 영국의 오엠 LUKE과 미국의 오엠 KAM에서 사역을 역임했으며 한국에서는 감리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미국 아주대학에서 종교학으로 석사과정을 마쳤고 현재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학하면서 숭의교회 담임목사로, 인천성서신학원에서 목회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음악목회자 제도의 필요성 (1)

담임목회자와 협조하여 능률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전문화된 목회를 담임목회자 한 사람의 활동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없게 됨으로 모든 교회 기능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음악 분야에도 전문적인 사역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김남수 교수

이러한 예배순서를 “찬송가 샌드위치”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이것은 예배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시간적 비중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주곡으로부터 시작하여 회중찬송, 기도송, 성가대 찬양, 현금송, 축도송, 그리고 후주곡까지의 연주시간을 합하면 음악활동 시간은 예배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된다.

이렇게 예배에서 음악은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며, 예배는 음악으로 시작하여 음악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음악 활동은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기능인 교육, 선교, 그리고 교육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 김남수 교수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음악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와 신탄진침례교회 음악목사(역임),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로서 섬기고 있다. 제45회 신인음악회(조선일보)로 데뷔하여, 21회 동아콩쿠르 입상, 18회 난파음악제 우수상, 18-19회 서울음악제에 연속으로 당선했으며, 대전광역시로부터 위촉을 받아 국악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大田詩曲”(2001)을 발표했고, 합창곡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2002)』을 출간했으며, Southern Seminary로부터 “Distinguished Composition Award(2003)”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예배와 음악(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8)』,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요단출판사, 1995)』, 『음악목회의 실제(요단출판사, 1996)』, 『침례교찬송가: 복음찬미(요단출판사, 2005)』, 『찬송의 이해(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가 있으며, 한국기독교학회에서 발표한 “21세기 찬송가를 위한 제언” 등 많은 논문이 있다.

고 있다.

둘째, 회중의 음악적인 필요조건을 공급하기 위하여 음악목회자의 활동이 필요하다.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교회음악 활동에도 매우 민감하다. 그렇다고 이들이 반응하는 필요성을 순수예술만을 통하여 채울 수는 없다.

교회음악이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며, 교인들의 영적인 생활을 돋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음악적인 도구를 알맞게 사용한다면 교인들이 요구하는 필요성을 공급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목회활동을 할 수 있다.

명품은 마무리가 다르다



정유성

명품과 가품의 차이는 원단의 차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래리 명품 가죽가방의 원단을 제공하는 가죽공장에서 똑같이 원단을 받아가도록 하나는 명품이 되고 하나는 가품이 됩니다. 이유는 하

나입니다.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 명품을 만들니다.

디테일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님을 들어보라면 저는 ‘끌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기건 웃이건 가방이건 건물이건 끌쳐리, 즉 끌마무리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꼼꼼하고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고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바느질 한 땀, 실밥 하나에도 정성과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찬양인도에 명품이니 가품이니 하는 개념을 대입시키는 것 자체가 불량(?)스럽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인도자들은 디테일에 강해야 합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정유성

감리교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유다지파’와 ‘부흥한국’에서 사역했으며 〈물가 운데 지날때에도〉, 〈하나님 눈 길 머무신 곳〉을 비롯하여 여러 곡을 작곡했고, 미국 알바인 소재의 베델한인교회에서 9년째 사역 중이다. 2009년부터 프리마 워십(www.pworship.com) 사역을 시작하면서, 찬양과 예배의 현장을 유튜브와 무료 방송사역을 통해 활발하게 나누고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가수 청하, 초록우산에 저소득 가정 환아 의료비 지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가수 청하가 저소득 환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초록우산 고액 기부자 모임 그린노블클럽 멤버인 청하는 2019년 환아 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아동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초록우산을 통해 선천성 구순 구개열로 인한 안면부 교정 수술, 무릎암으로 인한 골연장술 등 고액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청하는 지난해 2월에도 자신의 27번째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 별하랑 이름으로 귀 재건수술, 희귀 질환, 극심한 피부 질환 등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을 지원했으며, 올해 다시 경제적 환경과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

청하는 이번 기부와 관련해 “거듭되는 치료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갈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하루 빨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경제



초록우산은 가수 청하가 저소득 환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적 고충과 건강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청하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캘리그라피 문화선교단체 ‘청현재이’, 새 장소에서 첫 전시회 열어

캘리그라피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문화선교단체 청현재이(대표 임동규 회장)가 신년 기획전을 준비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의 장소는 이들이 문화선교 장소로 세운 아트센터의 개관을 기념하는 첫 번째 전시회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트센터는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다.

청현재이 말씀그리파 선교회는 캘리그라피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시 나눔, 교육 등 다양한 문화선교 도구로 활용하여 ‘오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초교파 비영리 말씀선교단체이다.

2014년에는 10개의 신학교가 참여한 부활절 말씀깃발전 등을 비롯해 2019년 기준으로 3000여 교회가 참여하는 범 기독교 문화적 행사로 확장되었다. 다양한 각종 절기 가운데 활발한 사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고 방자일 목사, 주기철 목사, 육한흠 목사, 언더우드 선교사, 김준곤 목사, 정필도 목사 등 의 어록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유산을 기억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일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말씀 사역자 과정을 개최하여



청현재이 말씀그리파 선교회가 신년 전시회를 개최한다. ©청현재이

성령의 글씨, 말씀그리파를 쓰는 목적, 방법, 태도 선교사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신도를 위해 이들의 말씀을 불들고 살 수 있는 헬링 프로그램, 성경 필사, 기훈 특강, 말씀 특강 등 외에도 다양한 교육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임동규 회장은 “드디어 아트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 이곳은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헬링하는 곳”이라며 “믿음을 위한 말씀그리파 전시와 교육이 365일 진행될 예정인 아트센터의 첫 전시회에 함께 해 주시길”이라고 전했다.

‘새 사람을 있으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달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상진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CTS 새벽예배-송태근 목사 40 사복음서 50 신앙에세이	40 힐링스토리 50 생명양식 -데일리큐티-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30 작은예수 40일 새기기도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00 TV 설교/연동교회 김주용 목사 30 TV 설교/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님길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4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00 TV 설교/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 3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센터 LA생명방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말씀의 센터 왕성교회 길요나 목사	2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30 TV 설교/새이데인 교회 소강석 목사	4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50 노년담화
오전	8:00 20 신양에세이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 성지기행	20 다큐 더 로드 30 힐링송 5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종훈 목사(금곡교회)	20 CBS성서학당	00 비전메시지 -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 세미나교회 이은상 목사
9:00	00 아주 특별한 찬양 50 리비아즈 헤리티지	50 낮은 곳으로 암소서 미니다큐	00 [말씀] 이종조 목사(갈보리교회) 40 CGN 비전특강	10 새롭게 하소서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00	00 청년백서3 3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람은 강물처럼 30 말씀의 센터 여의도침례교회 국영호 목사	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0 더 클링 : 부르심의 소명:117회 기도하며 전국 일주 2부 - 김 대성 목사 40 CBS TV 뉴스/CBS 뉴스	00 힐링토크 희복 플러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1:00	00 한국교회를 論하다 50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센터 충정교회 육성석 목사	00 어메이징 그레이스 40 저스트 텐 미닛 <아이자야 씽스티원> 50 말씀으로 호흡하는 교사	00 율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50 말씀의 창 - 청주금천교회 신경민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오방이어교회 금요성령충만집회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 설교/구세군대한분당(담당 사관) 30 TV 설교/만리현성결교회 조준철 목사	20 말씀의 창 - 대림교회 김명호 목사 50 말씀의 창 -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30 워드바이블	00 말씀의 센터 영광의교회 조이엘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다니엘 기도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미사강변 우리들교회 김기제 목사
14:00	00 [생방송] 클링간 50 아주 특별한 찬양	00 주일예배실황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00 TV 설교/신일교회 배요한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15:00	40 사장님은 선교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행복다이어리 30 TV 설교/약대교회 송규의 목사:하나님을 선택하라!	00 C채널 스페셜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감사예배
16:00	30 생명의 말씀-최태준 목사(남포교회)	00 말씀의 센터 옥길교회 임재호 목사 30 말씀의 센터 송천교회 권준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침 임그램의 성경이 말하는 현대 이슈 5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31강 - 조성숙 목사 "예수님의 바림의 법칙!" 5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인치유〉 340강 "주의 날아라 보호받는 자"	00 내 삶의 행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7:00	00 정필도 목사의 CTS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센터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30 말씀의 센터 분당선교교회 윤구현 목사	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40 CBS 교회소식 50 성서 700 도시여행/성서 700	00 말씀의 창 - 아산큰빛교회 길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 LA생명방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님길	00 행복플러스 30 한성워십 50 더 메시지	10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5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30 TV 설교/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네 보던 일을 셈하라	00 말씀의 창 -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30 성지가 좋다 - 국내면
19:00	00 청년백서3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 성지기행	00 말씀의 센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말씀의 센터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30 잇逖의 서재 시즌2	00 TV 설교/인천제일교회 이제일 목사 30 TV 설교/베다니교회 곽주한 목사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0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운차복 목사(영등포비전교회)	00 말씀의 센터 거룩한빛운정 유정상 목사 30 주일예배실황 지구촌교회 서울	00 풍당 비디오가게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오직 주님만 솔로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40 복음강단 - 영동영락교회 고요섭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다니엘 기도회	30 리비아즈 헤리티지 3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 50 CBS 뉴스	10 이석 목사의 일어내린 복음을 찾아서
22:00	40 다니엘 기도회	10 오륜교회 금요찰야	10 갓툰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한성교회-	10 유포원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금요성령집회 -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찰야예배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맥스 루체이도의 더 스토리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10 CBS 금요찰야예배/CBS 금요찰야예배:은혜의 유래카	10 금요찰야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클링간 50 하나님의 음성	00 주일예배실황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라디온	00 새롭게 하소서 50 TV 설교/산위의마을을교회 김영준 목사	00 새예데 chiếm야예배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0	1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40 CTS 특집다큐	00 오 자유여	00 [말씀] 황인철 목사(홀리문장로교회) 4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40 TV 설교/사랑의 말씀(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00 비전메시지 -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비아즈워십
2:00	30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40 사장님은 선교사	00 명설교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 3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이영훈 목사	30 TV 설교/말씀과 함께(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00 말씀의 창 - 필그림선교교회 양준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30 찰스 스텐리 목사의 주님의 순길	00 GOODTV 다큐스페셜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Wind and Fire 30 [말씀] 흥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00 새롭게 하소서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옥한흠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생명의 말씀-전태식 목사(서울진주초대교회)	00 은혜와 찬양 20 말씀의 센터 감일교회 차영아 목사 50 힐링송	10 [말씀] 박신옹 목사(알바인은누리교회)	00 CBS성서학당/스페셜 50 CBS 교회소식	00 힐링토크 희복 플러스 50 말씀의 창 - 남기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2024년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 제1사업권자로 선정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제1·2여객터미널 내 고객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은행 업무 및 환전은 물론, 여행자보험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 1위 KB국민은행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고객만족도 1등에 맞는 품격 있는 금융서비스로
고객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OPEN



* KB국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2개의 영업점과 11개의 환전소 및 15개의 ATM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KB KB국민은행